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박 재 광

- | | |
|---------------------|-------------------------------|
| I. 머리말 | |
| II. 壬辰倭亂 研究의 時代別 傾向 | 2) 水軍活動 |
| 1. 日帝時代 | 3) 義兵活動 |
| 2. 1950~60年代 | 4) 明軍의 參戰 |
| 3. 1970년대 | 4. 軍事制度·軍事動員體制·作戰指導 |
| 4. 1980~90년대 | 5. 軍事施設·裝備·武器 |
| III. 細部主題別 研究現況 | 6. 其他(降倭, 被拉人, 民衆生活相 등) |
| 1. 壬辰倭亂에 대한 視角 | 1) 降倭 |
| 2. 原因 | 2) 被拉人 |
| 3. 展開過程 | IV. 壬辰倭亂에 대한 새로운 視角 形成을 위한 提言 |
| 1) 官軍活動 | 【壬辰倭亂 관련 論著目錄】 |

I. 머리말

壬辰倭亂은 16세기말 東北아시아에서 일어난 國際戰爭이자, 戰後 國際秩序를 변화시킨 대사건이었다. 鳥銃으로 무장한 15만여 명¹⁾의 日本軍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壬辰倭亂에서 조선은 서울을 함락 당하고, 平安·咸鏡道까지도 유린당하는 등 絶對絶命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朝鮮側의 官軍과 각지에서 일어난 義兵·僧軍의 활약, 水軍의 海上權 장악, 明의 援兵에 따른 合同 反擊作戰은 戰勢를

1)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병력 수에 대해서는 육군 정규병력이 157,800여 명, 수군은 9,000명이었으며, 정규 전투부대 외에도 많은 병력이 출전하여 전체 병력은 20여 만명이었다.[李章熙 外, 1995, 《韓國史 29-朝鮮中期의 外侵과 그 對應》(국사편찬위원회, 서울)] 현재 한국측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부대 편성 기준에 맞춰 이를 따르고 있다.

反轉시켰다.

동아시아 三國이 벌인 이 전쟁으로 朝鮮側은 왕조가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고, 日本側은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明側 또한 새로운 청나라로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壬辰倭亂은 당시 동아시아 삼국의 정치구조를 뒤흔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었다.

또 壬辰倭亂은 한·일간에 역사인식의 차이에 의해 대립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종래에 일본에서는 침략주의의 풍조에 맞추어서 이 전쟁을 국위를 선양한 쾌거 또는 일본 팽창주의의 실례로 평가하기도 하였고, 반면 한국에서는 이를 일본인의 무력적 도발, 또는 침략으로 평가하고, 일부에서는 壬辰倭亂의 초반 이후의 반격과 격퇴를 과장하여 우리가 패배한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善隣友好的 차원에서 壬辰倭亂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의 중요한 事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성급하게 성격 규정하는 것보다는 당시의 여러 사회상황이나 역사적 조건과 연결 지어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역사적 省察이 필요하며, 동아시아 삼국이 벌인 국제전쟁의 측면에서 바라보려는 巨視的 觀點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국에서의 연구사를 시대적 경향과 함께 세부 주제별 연구사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壬辰倭亂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壬辰倭亂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李章熙를 비롯하여 몇 분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²⁾. 본고도 위의 연구사를 밑바탕으로 추가 보완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이 연구될 부분과 그 내용에 대한 전망도 함께 논하고자 한다.

2) 국내의 연구사 정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李章熙, 1975, <壬辰倭亂> 《韓國史論》 4(國史編纂委員會, 서울)

李章熙, 1987, <倭亂과 胡亂> 《韓國史研究入門》(제2판)(지식산업사, 서울)

河宇鳳, 1995, <事大交隣關係와 洋亂> 《韓國歷史入門》 2(한국역사연구회, 서울)

金文子, 1999, <壬辰倭亂에 대한 日本의 視覺 變遷> 《歷史批評》 46(역사비평사, 서울)

吳宗祿, 1999, <壬辰倭亂~丙子胡亂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8(국방군사연구소, 서울)

趙潁來, 2000, <壬辰倭亂史 研究의 推移와 課題> 《朝鮮後期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창작과비평사, 서울)

Ⅱ. 壬辰倭亂 研究의 時代別 傾向

1. 日帝時代

일제시대에 壬辰倭亂 연구는 거의 전부가 日本人 學者들의 研究成果인데, 주로 日本軍의 활약과 戰略·戰術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이미 1894년부터 성과가 나타났는데, 주로 征韓論의 歷史認識을 바탕으로 깔고 연구가 시작되어³⁾ 일본의 膨脹主義를 浮刻시키려는 植民史觀의 觀點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할 수 있다.

한편 韓國 연구자가 壬辰倭亂을 다룬 글도 일부 있었으나, 학문적 연구성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일제 植民地狀況에서 民族問題가 尖銳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壬辰倭亂史를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주목할 만 것이 보이는데, 申采浩의 《水軍第一偉人 李舜臣傳》⁴⁾과 崔南善의 《壬辰亂》,⁵⁾ 姜敷錫의 《東國戰亂史》⁶⁾ 등이 그것이다. 《水軍第一偉人 李舜臣傳》에서 申采浩는 이순신을 ‘水軍 第1偉人’으로 평가하면서 韓民族도 이러한 역사상의 영웅들을 본받아 용감히 國權回復運動을 전개한다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 崔南善의 《壬辰亂》과 姜敷錫의 《東國戰亂史》도 韓民族의 최대의 전란인 壬辰倭亂을 비롯한 주요 戰亂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는데, 國亂克復史를 통한 民族意識 고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일제에 의해 國權이 篡奪당한 危機 狀況下에서 民族意識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國權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民族主義史學의 歷史認識이 低邊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 北豊山人, 1894, 《文祿慶長朝鮮役》(附 朝鮮全圖).

4) 申采浩, 1908, 《水軍第一偉人 李舜臣傳》(獨立運動史研究所, 1989, 《獨立運動史敎養叢書 11 - 乙支文德·李舜臣傳·崔都統傳》, 독립기념관에 수록)

5) 崔南善, 1931, 《壬辰亂》(東明社)

6) 姜敷錫, 《東國戰亂史》[成百曉·柳在浩 譯, 1988, 《東國戰亂史(外亂)》(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서울)]

2. 1950~60年代

壬辰倭亂 연구는 植民地 治下에서 벗어난 뒤에도 한동안 進陟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日帝의 植民主義 歷史學을 극복하기 위한 民族主義的 霧圍氣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 속에 서서히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壬辰倭亂 연구의 첫 성과는 韓祐勛에 의해 이루어졌다.⁷⁾ 韓祐勛은 <壬辰亂 原因에 關한 檢討>에서 豐臣秀吉이 전쟁을 도발한 동기를 일본 국내정세와 연결 지어 파악함으로써 壬辰倭亂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후 壬辰倭亂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초기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한 분은 崔永禧이다. 崔永禧는 1957년에 조선 조정의 失政과 전쟁의 발발로 가장 큰 참화를 겪게 된 해안지역 주민의 壬辰倭亂 기간 동안의 동태를 고찰한 데 이어 거북선, 의병 연구 등에 힘을 기울여 壬辰倭亂과 관련된 군사사 연구의 안목을 넓혀 주었으며, 이후에도 임진왜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⁸⁾

1960년대에 들어와 壬辰倭亂 연구는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게 된다. 조선 중기 軍役의 붕괴상과 訓練都監 설치를 다룬 연구⁹⁾, 본격적인 전쟁사 측면에서의 壬辰倭亂을

-
- 7) 韓祐勛, 1952, <壬辰亂 原因에 關한 檢討 - 豐臣秀吉의 戰爭挑發原因에 對하여> 《歷史學報》 1(歷史學會, 서울)
 - 8) 崔永禧, 1957, <壬辰丁酉亂時 沿海民의 動態> 《史叢》 2(고려대 사학회, 서울)
 崔永禧, 1958, <龜船考> 《史叢》 3(고려대 사학회, 서울)
 崔永禧, 1960, <壬辰義兵의 性格> 《史學研究》 8(한국사학회, 서울)
 崔永禧, 1964, <壬辰倭亂中の 對明事大에 대하여> 《史學研究》 18(한국사학회, 서울)
 崔永禧, 1981, <壬亂 義兵의 性格> 《軍史》 2(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서울)
 崔永禧, 1985, <壬辰倭亂中の 民衆과 疑兵> 《東洋學》 15(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서울)
 崔永禧, 1990, <壬辰倭亂 湖南義兵의 特性> 《求禮 石柱閣 七義士》(구례군·목포대박물관)
 - 崔永禧, 1991, <壬辰倭亂前 湖南地方의 社會動態> 《壬辰倭亂과 전남》(전라남도)
 - 崔永禧, 1991, <壬辰倭亂의 再照明> 《國史館論叢》 30(국사편찬위원회, 과천)
 - 崔永禧, 1992, <壬辰倭亂 첫 戰鬪에 대하여> 《水邨朴永錫教授華甲記念韓國史學論叢》(上)
 - 崔永禧, 1992, <壬辰倭亂에 대한 理解의 問題點> 《韓國史論》 22(국사편찬위원회, 과천)
 - 崔永禧, 1992, <壬辰倭亂 연구를 위한 제언> 《아시아문화》 8(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춘천)
 - 9) 車文燮, 1961, <壬亂以後의 良役과 均役法의 成立>(上·下) 《史學研究》 10·11(韓國史學會)[1996,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단국대출판부)에 재수록]

분석한 연구¹⁰⁾, 水軍과 李舜臣의 활동을 정리한 연구¹¹⁾가 나왔으며, 이 외에도 서울의 防衛와 收復¹²⁾, 火藥武器 發達相¹³⁾, 對外關係¹⁴⁾, 壬辰倭亂의 被害相과 社會動態¹⁵⁾, 戰亂中の 外交 側面¹⁶⁾이나 經濟的 側面 分析¹⁷⁾, 日本으로 잡혀간 朝鮮 被虜人¹⁸⁾, 戰亂에 의한 日本에의 文化的 影響¹⁹⁾, 日本側 史料에 나타난 壬辰倭亂 분석²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나왔다. 그 가운데서도 義兵과 僧軍의 活躍에 대해서는 崔永禧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에 의해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義兵과 僧軍, 社會動態 등 壬辰倭亂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고찰한 李章熙의 연구²¹⁾도 돋보인다.

이 시기의 연구 성과로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李炯錫의 《壬辰戰亂史》이다. 이 책은 역사서술 방법이나 체제에 있어서 학술서로서의 한계성을 지녀 다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까지의 壬辰倭亂 관련 저서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戰爭史書이다. 특히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문헌사료들을 수집 인용하여 壬辰倭亂의 7년 戰爭史를 編年體 爲主의 戰鬪史로 엮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까지의 전반적인 연구 성과의 특징은 많은 연구들이 李舜臣에게 초점이 모아

-
- 10) 李炯錫, 1967, 《壬辰戰亂史》 上·下(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 11) 趙仁福, 1964, 《李舜臣戰史研究》(鳴洋社)
崔碩男, 1964, 《韓國水軍活動史》(鳴洋社)
 - 12) 金龍國, 1962, <壬辰倭亂中 서울 收復과 防衛計劃> 《鄉土서울》 22(서울市史編纂委員會, 서울)
李鉉淙, 1963, <壬辰倭亂과 서울> 《鄉土서울》 18(서울市史編纂委員會, 서울)
 - 13) 許善道, 1966, <李朝中期 火器의 發達(상·하)> 《歷史學報》 30·31(역사학회)[1994,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일조각)에 재수록]
 - 14) 金良善, 1964, <壬辰倭亂과 從軍神父 세스페데스의 來韓活動과 그 影響> 《史學研究》 18(한국사학회, 서울)
 - 15) 李崇寧, 1962, <壬辰倭亂과 民間人被害에 對하여> 《歷史學報》 17·18(역사학회, 서울)
李章熙, 1968, <壬亂中 民間叛亂考>(고려대학교 석사논문)
李章熙, 1968, <壬辰亂中 民間叛亂에 對하여> 《鄉土서울》 32(서울시사편찬위원회)[1999, 《壬辰倭亂사연구》(일조각)에 재수록]
 - 16) 崔永禧, 1964, <壬辰倭亂中の 對明事大에 대하여> 《史學研究》 18(한국사학회, 서울)
 - 17) 이영래, 1967, <壬辰倭亂의 經濟史的 意義> 《慶商論集》 3(건국대 경상학회, 서울)
 - 18) 金龍基, 1969, <壬辰倭亂의 被虜人刷還關係—新資料海東記考> 《大邱史學》 1(대구사학회, 대구)
 - 19) 金泰俊, 1958, 《壬辰亂과 朝鮮文化의 東漸》(한국연구총서 33집)(한국연구원)
한병식, 1962, <韓日文化故事—文祿 慶長役과 日本文化> 《漢陽》 1-9
 - 20) 丁仲煥, 1963, <日本記錄에서 본 壬辰亂> 《港都釜山》 3(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
 - 21) 李章熙, 1969, <壬亂海西義兵에 대한 一考察> 《史叢》 14(고려대 사학회, 서울)
李章熙, 1969, <壬辰倭亂僧軍考> 《李弘稷博士回甲紀念 韓國史論叢》(간행위원회, 서울)[이상 모두 《壬辰倭亂史研究》에 수록]

졌다.22) 전체 연구물 중에 이순신에 관련한 연구는 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이는 아마도 日本의 植民支配에 대한 雪辱을 이순신에게서 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시기의 북한과 일본에서도 壬辰倭亂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에서는 역시 民族主義的 觀點이 강하게 透映된 研究가 다수 이루어졌다.23) 또 日本에서는 과거 帝國主義 時代의 觀點에서 벗어나 義兵이나 朝鮮 民衆의 叛亂 등 朝鮮 內部의 社會動態, 戰爭의 原因, 戰爭 以後의 東아시아 國際秩序 變動 등 다양한 觀點에서 연구가 진전되었다. 이는 日本의 새로운 東아시아 國際秩序 構築 意志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와 壬辰倭亂史 연구는 조선시대의 軍事史 분야의 학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68년에 壬辰倭亂 시기까지의 朝鮮前期의 軍制 전반과 國防體制의 變化上, 烽燧制·驛站制·武器의 발달, 軍事 服飾制度 등을 정리한 《韓國軍制史》²⁴⁾가 발간되었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960년대 말~1970년대초에 壬辰倭亂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²⁵⁾

22) 金龍國, 1964, 《韓國海戰史》(해군본부)

趙仁福, 1964, 《李舜臣戰史研究》(명양사)

崔碩男, 1964, 《韓國水軍史研究》(명양사)

23) 北韓學界의 壬辰倭亂 研究成果로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형섭, 1957, 《1592~1598 임진조국전쟁에서의 인민의병투쟁》(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대·중세사연구실, 1958, <임진조국전쟁과 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 《역사과학》 1958-6

윤석원, 1963, 《郭再祐 指揮下의 嶺南 人民의 義兵鬭爭》(조선로동당출판사)

윤석원, 1963, 《壬辰祖國戰爭》(조선로동당출판사)

최길성, 1964, 《壬辰祖國戰爭時機 우리 水軍의 鬭爭》(사회과학출판사)

24) 陸軍本部 編, 1968, 《韓國軍制史》(육군본부, 서울)

25) 金聖泰, 1970, <李舜臣將軍의 性格 研究> 《行動科學研究》 1(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서울)

金日基, 1970, <閑山大捷과 그 影響> 《논문집》 2(삼척농업전문학교)

丁仲煥, 1970, <壬辰倭亂과 釜山 史蹟> 《朴元杓先生回甲記念 釜山史研究論叢》(간행위

대표적 연구물을 소개한다면 崔永禧의 《壬辰倭亂中の 社會動態》를 들 수 있다.²⁶⁾ 崔永禧는 壬辰倭亂 연구의 先驅的인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임진왜란 의병의 성격 규명을 핵심적인 연구 테마로 삼아서 임진왜란 초기부터 無政府狀態에 빠진 사회상황 속에서의 民衆의 동향과 의병들의 變化相을 고찰하였다.

이 외에도 壬辰倭亂期 軍糧 調達 실태를 파악한 李章熙의 연구²⁷⁾, 壬辰倭亂을 對外關係史의 시각에서 살펴 본 李鉉淙의 연구,²⁸⁾ 그리고 壬辰倭亂 발발 이후에 신설된

원회, 부산)

崔槿默, 1970, <壬亂때의 湖西義兵에 대하여> 《論文集》 9(인문사회과학편)(충남대, 대전)

金潤坤, 1971, <壬辰亂 勃發 直前の 地方郡縣實態> 《柳洪烈博士 華甲記念論叢》(서울)

李章熙, 1971, <壬亂時 投降倭兵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6(韓國史研究會, 서울)

李章熙, 1971, <壬亂中 糧餉考 -明兵의 軍糧調達을 中心으로> 《史叢》 15,16합(고려대 사학회, 서울)

金錫禧, 1972, <壬辰亂의 義兵에 관한 再考察> 《論文集》 13(부산대, 부산)

宋正炫, 1972, <壬辰倭亂과 湖南義兵> 《歷史學研究》 4(전남대 사학회, 광주)

金義煥, 1972, 《人間 李舜臣傳》(연문출판사)

李章熙, 1972, <壬亂前의 西北邊界政策> 《白山學報》 12(백산학회, 서울)

崔書勉, 1973, <壬辰倭亂의 불모 '오다아 줄리아'에 關한 史的 考察> 《鷺山李殷相博士古稀紀念 民族文化論叢》(간행위원회, 서울)

許善道, 1973·74, <制勝方略研究(상,하) -壬辰倭亂直前 防衛體制의 實狀> 《震檀學報》 36·37(진단학회, 서울)

李炯錫, 1974, 《壬辰戰亂史 상·중·하》(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崔永禧, 1974, 《壬辰倭亂》(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崔槿默, 1974, <壬辰倭亂때의 湖西地方의 民間叛亂> 《百濟研究》 5(충남대 백제연구소, 대전)

金鍾旭, 1974, <壬亂時의 被虜人 刷還> 《日本研究》

金鍾旭, 1974, <壬亂後의 朝鮮과 日本의 復交> 《日本研究》

李殷相, 1974, 《忠武公의 生涯와 思想》(삼성문화문고 63) (삼성문화재단)

李鉉淙, 1974, <壬辰倭亂時 琉球 東南亞人의 來援> 《日本學報》 2(한국일본학회, 서울)

崔永禧, 1975, 《壬辰倭亂中の 社會動態 -義兵을 中心으로>(한국연구원)

金泰俊, 1975, <日本 新儒學의 成立과 朝鮮學者—壬亂前後의 朝鮮文化의 對日影響을 中心하여> 《論文集》 8(명지대, 서울)

權重憲, 1976, <壬辰倭亂을 中心으로 한 三國(韓中日)의 外交關係> 《院鳳》 3(경희대 대학원, 서울)

金泰俊, 1976, <鶴峰 金誠一의 日本日錄> 《明知語文學》 8(명지대, 서울)

李慶姬, 1979, <壬辰倭亂에 捕虜된 陶工들의 行方> 《論文集》 1(대구공전, 대구)

26) 崔永禧, 1975 앞의 책

27) 李章熙, 1971, <壬亂中 糧餉考 -明兵의 軍糧調達을 中心으로> 《史叢》 15·16합

中央 軍營을 통한 中央軍制 變化 樣相을 상세히 분석한 車文燮의 연구,²⁹⁾ 壬辰倭亂 研究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國防體制의 變遷 科程과 防衛體制의 實狀을 고찰한 許善道의 연구³⁰⁾ 등도 주목된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이러한 일련의 연구성과는 國史編纂委員會의 《韓國史》로 정리되었다. 이 책에서 임진왜란사가 서술된 부분은 제12권(冊題:《兩班社會의 矛盾과 對外抗爭》) 가운데 1개 절로 다루어졌는데, <日本の 侵寇>라는 제목으로 정리된 이 글에서 ‘日本の 侵略戰爭準備’ ‘倭軍의 侵寇’ ‘宣祖의 西遷’ ‘義兵의 蜂起’ ‘水軍의 勝利’ ‘反擊戰과 強化會談’ ‘丁酉再亂’ ‘倭亂의 影響’ 등이 차례대로 서술되었다.

4. 1980~90년대

1980년대 이후 壬辰倭亂 연구는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壬辰倭亂을 朝鮮이 敗한 戰爭으로 보던 既存의 認識에 대한 反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³¹⁾ 이는 기존에 日本人 官學者들의 植民史觀의 觀點에서 연구된 결과의 영향을 받아 壬辰倭亂을 敗北한 戰爭으로 인식해온 것에 대한 反論이었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에서 노출되었던 ‘殉國史觀’이나 ‘英雄史觀’을 止揚하고 보다 戰爭史의 입장에서 軍制·軍需·武器·戰術·關防·情報 등의 각 분야에 대한 客觀的인 연구를 통해서 壬辰倭亂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自省論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후 壬辰倭亂의 戰

28) 李鉉淙, 1974, <壬辰倭亂時 琉球·東南亞人の 來援> 《日本學報》 29(일본학회, 서울)

29) 車文燮, 1970, <宣祖朝의 訓練都監> 《史學志》 4(檀國大 史學會, 서울)

30) 許善道, 1973, <‘鎮管體制 復舊論’研究 - 柳成龍의 軍政改革의 基本施策 -> 《國民大論文集》 1

許善道, 1973·74, <制勝方略 研究 - 壬辰倭亂 直前の 防衛體制의 實相>(上·下) 《震檀學報》 36·37(震檀學會, 서울)

31) 許善道, 1985, <壬辰倭亂論 - 올바른 새로운 認識>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論叢》

崔永禧, 1991, <壬辰倭亂의 再照明> 《國史館論叢》 30(국사편찬위원회, 서울)

崔永禧, 1992, <壬辰倭亂에 대한 利害의 問題點> 《韓國史論》 22(국사편찬위원회, 서울)

崔永禧, 1992, <壬辰倭亂 研究를 위한 提言> 《아시아문화》 8(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춘천)

許善道, 1992, <壬辰倭亂史論 - 壬亂史의 올바른 認識> 《韓國史論》 22(국사편찬위원회, 서울)

崔永禧, 1998, <壬辰倭亂에 대한 몇 가지 意見> 《南冥學研究》 7(경상대 南冥學研究所, 진주)

爭史的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壬辰倭亂 연구는 또 다른 문제를 露呈하고 있었다. 전쟁은 그 속성상 軍事行動을 통해 政治的 目的을 貫徹하려는 것이기에 勝敗에 대한 해답은 自明할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勝敗에만 집착하여 대규모 國際戰爭이 朝鮮 領土 안에서 전개됨으로써 朝鮮側이 決定的인 피해를 입었다는 側面은 상대적으로 死藏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壬辰倭亂이 조선 역사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보다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후 壬辰倭亂 연구는 壬辰倭亂 勃發 400주년인 1992년을 기점으로 하여 더욱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³²⁾ 또 壬辰倭亂을 주제로 한 專門 研究者도 점차 증가하였으며, 壬辰倭亂과 관련한 주제의 博士學位論文도 계속 이어졌다³³⁾. 이는 壬辰倭亂 연구의 폭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이와 함께 연구의 基礎作業이라 할 관련 文獻資料의 수집과 정리도 점차 進展되었고,³⁴⁾ 특히 壬辰倭亂과 관련된 人物의 文獻資料가 체계적으로 연구, 보급되면서 그 방면의 연구는 더욱 활발해지고 깊이를 더해갔다. 이러한 경향은 地方自治制가 실시된 이후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壬辰倭亂 연구는 個別 戰鬪史³⁵⁾를 포함한 軍事的 側面에서의 연구 성과³⁶⁾

32) 이와 관련된 대표적 성과로 1992, 《韓國史論》 22, <壬辰倭亂의 再照明>, 國史編纂委員會; 1991, 《壬辰倭亂400周年學術大會, 壬辰倭亂과 全南》(全羅南道); 1993,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海軍軍史研究室) 등을 들 수 있다.

33) 朴成植, 1986, 《壬辰倭亂의 研究 -壬辰·癸巳年 晉州城戰鬪를 中心으로》(영남대 박사학위논문, 경산)

李貞一, 1989, 《壬辰倭亂研究》(중앙대 박사학위논문, 서울)

趙援來, 1991, 《壬亂 湖南義兵에 관한 研究》(국민대 박사학위논문, 서울)

金永淑, 1992, 《忠武公 李舜臣 研究》(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서울)

金弘, 1993, 《壬辰倭亂의 軍事史的 研究》(경북대 박사학위논문, 대구)

金康植, 1998, 《壬辰倭亂期 慶尙右道の 義勇운동》(부산대 박사학위논문, 부산)

郭鎬濟, 1998, 《壬辰倭亂期 湖西義兵研究》(충남대 박사학위논문, 대전)

李敏雄, 2002, 《壬辰倭亂 海戰史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서울)

34) 亞細亞文化社, 1984, 《壬辰倭亂關係文獻總刊》(1~3)

壬亂史料編纂委員會, 1990·1992, 《湖南地方 壬辰倭亂 史料集》 1~4(全羅南道)

35) 丁仲煥, 1981, <壬辰倭亂時의 釜山地區戰鬪> 《軍史》 2(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서울)

朴性植, 1982, <癸巳 晉州城戰鬪 小考> 《慶北史學》 4(慶北大 史學科, 대구)

趙成都, 1982, <鳴梁海戰 研究> 《軍史》 4(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서울)

朴性植, 1986, 《壬辰倭亂의 研究 -壬辰·癸巳年 晉州城戰鬪를 中心으로》(영남대 박사학위논문, 경산)

李章熙 외, 1989,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照査> 《軍史》 19(國防部 戰史編

외에도 사회·문화·경제·사상 등 각기 다른 측면에서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湖南·湖西·慶尙 義兵活動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중있는 성과를 거두었다.³⁷⁾

纂委員會, 서울)

崔永禧, 1992, <壬辰倭亂 첫 戰鬪에 대하여> 《水邱朴永錫教授華甲記念韓國史學論叢》(上)

金鍾基, 1993, <釜山浦海戰>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海軍軍史研究室, 진해)

鄭鎭述, 1993, <閑山島海戰 研究>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海軍軍史研究室, 진해)

崔孝軾, 1994, <壬辰倭亂中 永川城 奪還戰鬪의 考察> 《大邱史學》 47(大邱史學會)

趙潏來, 1996, <丁酉再亂과 順天 倭橋城戰鬪> 《아시아문화》 12(翰林大 아시아문화연구원, 춘천)

金鍾基, 1997, <制海權의 觀點에서 본 李舜臣의 海洋戰略> 《海洋戰略》 95(海軍大學, 진해)

北島万次, 1998, <壬辰倭亂과 晉州城戰鬪> 《南冥學研究》 7(慶尙大 南冥學研究所, 진주)

36) 朴俊炳, 1983, <壬亂中 火藥兵器 技術의 開發>(국민대 석사논문, 서울)

許善道, 1983·84, <神器秘訣 - 韓國火藥兵器의 裝放法을 中心으로(상·하)> 《한국학논총》 5·6집

鄭夏明, 1991, <朝鮮時代의 砲口와 震天雷> 《육사논문집》 40(육군사관학교, 서울)

朴哲暁, 1994, <壬辰倭亂과 火藥兵器>(건국대 석사논문, 서울)

朴哲暁, 1995, <壬辰倭亂期 朝鮮軍의 火藥兵器에 대한 一考察> 《軍史》 30(국방군사연구소, 서울)

朴哲暁, 1996, <東아시아 三國의 武器 製造와 交流 - 15.16世紀를 中心으로> 《學藝志》 5(육군박물관)

朴哲暁, 1996, <壬辰倭亂期 朝日兩國의 武器體系에 관한 一考察> 《韓日關係史研究》 6(한일관계사학회, 서울)

姜性文, 1999, <幸州大捷에서의 權慄의 戰略과 戰術> 《壬辰倭亂과 權慄將軍》(전쟁기념관, 서울)

姜性文, 2002, <朝鮮의 歷代 火車에 관한 研究> 《學藝志》 9(육군박물관, 서울)

朴哲暁, 2002, <15~16世紀 朝鮮의 火器 發達> 《학예지》 9(육군박물관, 서울)

37) 金鎭鳳, 1982, <壬辰亂中 湖西地方의 義兵活動과 地方士民의 動態에 관한 研究> 《史學研究》 34(韓國史學會)

趙潏來, 1982, 《義兵將 金千鎰研究》(學文社)

李章熙, 1983, 《郭再祐研究》(養英閣)

文守弘, 1983, <壬亂中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 《南都泳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宋正炫, 1983, <壬辰倭亂에 있어서의 湖南義兵> 《歷史學研究》 (전남대 사학회, 광주)

趙潏來, 1985, <壬亂初期 全羅義兵의 性格> 《史鄉》 2(公州師大 歷史教育科, 공주)

趙潏來, 1985, <壬辰倭亂期 全羅道義兵의 性格 - 壬辰年 嶺南地域에서의 活動相을 中心으로>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연구자는 趙潑來이다. 趙潑來는 80년대부터 湖南義兵에서 출발하여 陸戰・明軍・水軍 그리고 海上義兵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³⁸⁾ 특히 壬辰倭亂 義兵中에서 湖南義兵이 物力을 바탕으로 하여 대규모의 의병활동을 함으로써 戰亂 克復의 주요한 動力으로 작용하였다는 점과 湖南義兵의 性格을 1・2차 戰爭期로 구분하여 1차때에는 國家防衛를 목표로 한 勤王義兵의 性格을 지녔고, 2차때인 丁酉再亂때에는 鄉土防衛를 목표로 한 鄉保義兵의 性格을 갖는다고 한 점은 주목된다.

또한 1995년에 國史編纂委員會에서 《한국사 29, 조선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을 새롭게 발간하였는데, 그때까지의 壬辰倭亂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에 있어서 분량 자체도 대폭 확대되었고, 집필자도 崔永禧・李章熙를 비롯하여 宋正炫, 趙潑來, 孫鍾聲, 張學根 등의 전문학자들을 참여시켜 당시까지의 다양한 주제와 깊이있는 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倭亂前의 國內外 政勢를 면밀히 분석한 내용에서부터 戰亂中 農民의 實狀과 함께 全般的인 社會相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日本軍을 격퇴할 수 있었던 朝鮮側의 戰略 戰術에 이르기까지

로> 《史鄉》 2(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공주)

李錫麟, 1985, <壬亂初期 義旅의 構成 및 成分分析 -重峯義旅를 中心으로> 《湖西文化研究》 5(忠北大 湖西文化研究所, 청주)

高錫珪, 1988, <鄭仁弘의 義兵活動과 山林基盤> 《韓國學報》 51(一志社, 서울)

趙潑來, 1989, <壬亂期 湖南義兵과 義兵指導層의 性格> 《북악사론》 1(국민대 국사학과, 서울)

趙潑來, 1991, 《壬亂 湖南義兵에 관한 研究》(국민대 박사논문, 서울)

李章熙, 1992, <壬辰倭亂 義兵性格의 分析> 《韓國史論》 22(國史編纂委員會, 서울)

趙潑來, 1992, <壬辰倭亂과 海上義兵> 《擇窩許善道先生停年記念 韓國史學論叢》(일조각, 서울)

金康植, 1993, <壬辰倭亂 義兵活動과 性格> 《釜大史學》 17(부산대 사학회, 부산)

梁銀容, 1994, <壬辰倭亂과 湖南의 佛教義僧軍> 《韓國宗教》 19(圓光大 宗教問題研究所, 이리)

趙潑來, 1994, <丁酉再亂과 湖南義兵> 《全南史學》 8(전남사학회)

崔孝軾, 1994, <壬亂中 慶州寺院의 抗戰活動> 《芝村金甲周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金康植, 1995, <壬辰倭亂 義兵의 性格 變化> 《釜大史學》 19(부산대 사학회)

宋正炫, 1995, <義兵의 蜂起> 《韓國史》 29(국사편찬위원회)

崔孝軾, 1997, <壬亂初 慶州 義兵活動 研究> 《慶州史學》 16(경주사학회, 경주)

金康植, 1998, 《壬辰倭亂期 慶尙右道の 義兵運動》(부산대 박사논문, 부산)

趙潑來, 1998, <壬辰倭亂과 綾州義兵> 《綾州牧의 歷史와 文化》(목포대박물관・회순군)

38) 趙潑來, 2000, 《壬辰倭亂과 湖南地方의 義兵抗爭》(아세아문화사, 서울)

매우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³⁹⁾

한편 1990년대 이후의 韓國側の 이러한 研究傾向은 日本側の 壬辰倭亂 研究에 자극받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北島萬次는 ‘豊臣秀吉의 朝鮮侵略과 그 歴史的告發’이란 副題로 펴낸 壬辰倭亂 史料解説集 《朝鮮日日記·高麗日記》 이후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 朝鮮侵略》,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壬辰倭亂と秀吉・島津・李舜臣》 등의 연구를 통해서 1592년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明나라 征服을 目標로 한 제1차 朝鮮侵略으로, 1597년에 쳐들어온 丁酉再侵의 경우는 朝鮮領土 奪取를 目標로 한 제2차 조선침략으로 규정하여 과거의 일본측 학자들의 연구 시각과는 크게 다른 시각을 보였다.⁴⁰⁾ 또 貫井正之⁴¹⁾는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이 朝・日 兩國의 民衆生活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즉 조선 민중을 테마로 하여 연구 폭을 넓혔다. 이들의 연구는 현재까지도 壬辰倭亂에 대한 否定的인 研究와 認識이 뿌리깊은 日本 歴史學界에서 보기 힘든 성과로서, 일본에 있어서의 壬辰倭亂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Ⅲ. 細部主題別 研究現況

1. 壬辰倭亂에 대한 視角

壬辰倭亂을 보는 視角 및 觀點과 관련된 것으로 崔永禧・許善道・李泰鎮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로부터 壬辰倭亂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검토되었는데, 첫 번째로 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전쟁의 성격을 규정짓는 시각이 있고,⁴²⁾ 두 번째로 전쟁의 승패와 관련한 시각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전쟁의 피해를 중심으로 성격을 규정짓는 시각이 있다. 첫 번째 측면의 시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6세기에 한·

39) 李章熙 外, 1995, 《韓國史 29, 朝鮮中期의 外侵과 그 對應》(국사편찬위원회, 서울)

40) 北島萬次, 1982, 《朝鮮日日記·高麗日記》(そしえて)

北島萬次, 1990,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 朝鮮侵略》(校倉書房)

北島萬次, 1995, 《豊臣秀吉の朝鮮侵略》(吉川弘文館)

北島萬次, 2002, 《壬辰倭亂と秀吉・島津・李舜臣》(校倉書房)

41) 貫井正之, 1996, 《豊臣政權の海外侵略と朝鮮義兵研究》(青木書店)

42) 韓祐勗, 1952 앞의 논문

중·일 사이에서 활발히 전개된 국제무역에서 일본이 처한 교역상의 劣勢와 不利를 군사력을 통해 일거에 타파하려는 목적에서 豐臣秀吉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견해이다.⁴³⁾ 두 번째 측면의 시각은 壬辰倭亂을 패한 전쟁으로 보던 기존의 인식에 대한 반성⁴⁴⁾과 함께 종래의 ‘殉國史觀’이나 英雄史觀을 지양하고 보다 戰爭史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壬辰倭亂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측면의 시각에 대한 것들은 일부 학문적 성과 및 여러 역사 대중서적인 성격이 강한 성과들에서 제기된 것⁴⁵⁾들로, 壬辰倭亂 때 일본에 전파된 우리의 도자기 기술이나 조선 백성이 일본군의 포로로 되었다가 국제사회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던 것을 강조하는 시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壬辰倭亂을 보는 시각은 이 세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原因

壬辰倭亂의 원인은 전쟁의 성격을 밝혀주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연구자들은 대체로 몇 가지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① 豐臣秀吉이 織田信長の 의도를 계승하기 위해, ② 명나라와의 무역이 단절되자, ③ 豐臣秀吉 개인의 정복욕 때문에, ④ 豐臣秀吉의 장남 鶴松의 죽음 때문에, ⑤ 경제적 이득을 위해, ⑥ 국내통일과정에서 발생한 大名과 무사들의 불만 해소 등이다. 이에 반해 한국 연구자들은 대체로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있고 체계적인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壬辰倭亂의 원인을 일본 국내정세와 연결 지어 파악한 韓祐勗의 선구

43) 李泰鎮, 1986, <16世紀 東아시아의 歷史的 常況과 文化> 《韓國史會史研究》(지식산업사, 서울)

44) 許善道, 崔永禧 앞의 논문

45) 崔書勉, 1973, <壬辰倭亂의 불모 -‘오다아 줄리아’에 관한 史的 考察> 《民族文化論叢(노산 李殷相博士 古稀記念論文集)》(간행위원회, 서울)

金泰俊, 1977, 《壬辰倭亂과 朝鮮文化의 東漸》(한국문화원, 서울)

李進熙, 1982, 《韓國과 日本文化》(을유문화사, 서울)

李元淳, 1985, <壬辰·丁酉倭亂時의 朝鮮俘虜 奴隸問題> 《邊太燮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삼영사, 서울)

李俊杰, 1986, 《朝鮮時代 日本과 書籍交流 研究》(弘益齋, 서울)

李採衍, 1995,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박이정출판사, 서울)

李採衍, 1998, <韓·日實記文學에 나타난 壬辰倭亂 體驗의 形象化戰略> 《韓國文學論叢》22(韓國文學會, 서울)

적 업적⁴⁶⁾에서 출발하여 대외관계의 관점에서 또는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다른 일부 연구성과들이 있었다.⁴⁷⁾ 또 李泰鎭은 거시적으로는 국제관계 및 국내 정치사의 흐름, 미시적으로는 전술적 측면까지 고려하며 壬辰倭亂의 원인을 살핀 바 있다.⁴⁸⁾ 특히 이 주제는 한일 교과서에서의 서술 방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주제로서 壬辰倭亂 원인에 대한 양국의 상호 비교사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 展開過程

壬辰倭亂史 연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것들로, 관군 및 의병과 승군 그리고 이들 병력의 명군과의 연합에 의한 전투를 다룬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壬辰倭亂의 전쟁사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李炯錫에 의해 開戰으로부터 終戰에 이르기까지의 각 전투가 상세히 전술적 측면에서 분석되고 전쟁 당사국인 조선과 명 및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전략·전술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져 전쟁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⁴⁹⁾. 또 기왕의 군사사 각 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투의 유형을 규정지면서 주요 전투에 대한 상황을 요약한 도록을 첨부하여 체계적으로 전쟁사를 다시 정리한 서인한의 연구⁵⁰⁾ 등이 있다. 또한 壬辰倭亂 중의 주요 전투에 각각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전되어 많은 성과가 나와 있다.

1) 官軍活動

壬辰倭亂 기간중 조선의 관군, 즉 정규군의 활동과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연구가 가장 부진한 분야이다. 그 까닭은 아마도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이 連敗를 거듭한 이유가 軍事體制의 總體的 不實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임란은 조선군의 조직정비와 재편에 따른 군

46) 韓沽勛, 1952 앞의 논문

47) 李章熙 外, 1995, 《韓國史 29, 朝鮮中期의 外侵과 그 對應》(국사편찬위원회)

48) 李泰鎭, 1980, <壬辰倭亂에 대한 理解의 몇 가지 問題> 《軍史》 1(전사편찬위원회)

49) 李炯錫, 1967, 《壬辰戰亂史》(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1974년 上·中·下 세권으로 개정 발간]

50) 徐仁漢, 1987, 《壬辰倭亂史》(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사력 회복과 함께 전세가 개선되어 나갔다. 더구나 전쟁시 正規軍의 활동은 사실 당연한 역할이었던 점과 함께 明軍의 파견과 함께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리라는 판단도 임진왜란 중 정규군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 연구가 적었던 배경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官軍의 활동 전반을 다룬 연구나 陸軍의 활동을 다룬 것은 극히 소수이며⁵¹⁾, 대부분 水軍과 海戰, 그리고 李舜臣에 대한 연구가 크게 편중된 실정이다. 이는 碧蹄館戰鬪와 龍仁戰鬪에 대한 연구가 일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⁵²⁾ 勝戰을 중시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壬辰倭亂 중의 주요 전투에 개별적인 연구도 점차 진전되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⁵³⁾ 특히 본격적인 軍事史 연구성과로서의 성격을 갖춘

-
- 51) 張學根, 1992, <壬辰倭亂기 官軍의 活躍> 《韓國史論》 22(국사편찬위원회, 서울)
李章熙, 1995, <倭軍擊退의 戰略·戰術> 《韓國史》 29(국사편찬위원회, 서울)
- 52) 妻木忠太, 1906, <碧蹄館附近における戰役について> 《史學雜誌》 17-8
池內宏, 1911, <龍仁の戰> 《東洋時報》 145
- 53) 丁仲煥, 1981, <壬辰倭亂時의 釜山地區戰鬪> 《軍史》 2(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서울)
朴性植, 1982, <癸巳 晉州城戰鬪 小考> 《慶北史學》 4(慶北大史學科, 대구)
趙浚來, 1982, <第二次 晉州城戰鬪와 金天鑑의 戰功問題> 《軍史》 5(전사편찬위원회)
李熙煥, 1983, <丁酉再亂時의 南原城戰鬪에 對하여> 《全北史學》 7(전북대 사학과)
朴性植, 1986 <壬辰倭亂의 研究 - 壬辰·癸巳年 晉州城戰鬪를 중심으로 -> (嶺南大 博士論文)
李章熙 外, 1989,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照査> 《軍史》 19(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崔孝軾, 1991, <壬辰倭亂中 慶州戰鬪> 《慶州史學》 10(동국대 국사학과)
崔永禧, 1992, <壬辰倭亂 첫 戰鬪에 대하여> 《水邱朴永錫教授華甲記念韓國史學論叢》 (上)
崔孝軾, 1994, <壬辰倭亂中 永川城 奪還戰鬪의 考察> 《大邱史學》 47(大邱史學會, 대구)
池承鍾, 1995, <16世紀末 晉州城戰鬪의 背景과 戰鬪狀況에 관한 研究> 《慶南文化研究》 17(慶尙大 慶南文化研究所)
趙浚來, 1996, <丁酉再亂과 順天 倭橋城戰鬪> 《아시아문화》 12(翰林大 아시아문화연구원, 춘천)
北島万次, 1998, <壬辰倭亂과 晉州城戰鬪> 《南冥學研究》 7(慶尙大 南冥學研究所, 진주)
姜性文, 1999, <幸州大捷에서의 權慄의 戰略과 戰術> 《壬辰倭亂과 權慄》(전쟁기념관, 서울)
朴哲暁, 1999, <壬亂 初期戰鬪에서의 官軍의 活動과 權慄> 《壬辰倭亂과 權慄》(전쟁기념관, 서울)

연구들이 이 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張學根은 壬辰倭亂이 勃發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조선 朝廷의 官軍 運用政策과 戰爭 局面에 나타난 官軍의 動向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戰亂의 長期化 要因과 性格을 糾明하고자 하였다.⁵⁴⁾

2) 水軍活動

임진왜란에 있어서 수군활동은 조선이 戰亂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日本軍이 開戰初부터 乘勝長驅하던 陸上과는 달리 壬辰年 5월초 玉浦海戰 이후 거듭된 海戰에서의 패배는 日本軍의 戰意를 꺾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점차 戰勢全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수군활동에 관한 연구는 1908년 申采浩가 《大韓每日申報》에 <李舜臣傳>을 연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⁵⁾ 당시 征韓論을 앞세운 일본의 韓半島 侵略에 맞서 反日義兵戰爭이 한창이던 때였기 때문에 民族主義史觀에 의해 韓國人의 民族精神을 換氣시키고자 하는 배경에서 집필된 것이었다. 이 <이순신전>은 이순신의 《난

李相薰, 1999, <都元帥 權慄의 戰略 構想과 活動> 《壬辰倭亂과 權慄》(전쟁기념관, 서울)

李章熙, 1999, <都元帥 權慄論> 《壬辰倭亂과 權慄》(전쟁기념관, 서울)

郭鎬濟, 2000, <壬辰倭亂期 梨峙大捷의 意義와 再檢討> 《忠南史學》 12(충남사학회, 대전)

金祥起, 2000, <壬辰倭亂期 權慄의 梨峙大捷> 《忠南史學》 12(충남사학회)

趙溪來, 2000, <壬亂初期 두 차례의 錦山戰鬪와 그 戰略의 意義> 《忠南史學》 12(충남사학회)

崔槿默, 2000, <壬辰倭亂期 金山戰鬪의 殉節과 梨峙大捷에 대한 崇揚> 《忠南史學》 12(충남사학회)

崔永禧, 2000, <壬辰倭亂史에서의 梨峙大捷의 意義> 《忠南史學》 12(충남사학회)

朴哲晧, 2002, <壬辰倭亂期 望菴 邊以中の 軍事活動> 《壬辰倭亂期 望菴 邊以中の 活動과 思想》(성균관·봉암서원, 서울)

朴哲晧, 2002, <壬辰倭亂期 日本軍의 漢城占領과 盧原坪戰鬪> 《盧原의 歷史를 再照明한다-壬辰倭亂을 中心으로>(광운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서울)

盧永九, 2003, <壬辰倭亂 初期 樣相에 대한 既存 認識의 再檢討 -和歌山縣立博物館 所藏 '壬辰倭亂圖屏風'에 대한 새로운 理解를 바탕으로> 《韓國文化》 31(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54) 張學根, 1992, <壬辰倭亂기 官軍의 活躍> 《韓國史論》 22(국사편찬위원회)

55) 1908년 5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약 100일간 연재된 것으로, 후에 1977, 《丹齋申采浩全集》中(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에 수록되었다.

중일기》와 임진왜란 중의 장계 등의 사료를 충실히 반영한 최초의 이순신 연구이자 임진왜란 해전사 서술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후 이순신에 대한 관심은 해방 이후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李殷相·李允宰 등의 李舜臣 傳記⁵⁶⁾ 출간에서 비롯하여 이 분야에 집중된 저술들은 1960년대에 절정을 이룬 뒤 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李忠武公全書》와 《亂中日記》등을 國譯으로 간행, 이를 널리 대중화하는 등 이 분야 연구를 적극 주도한 이은상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60년대에는 趙仁福·崔碩男 등 군출신의 軍史學者들에 의해 이순신의 활동과 전공이 강조된 壬亂海戰史 관련 저서들이 속출하였다.⁵⁷⁾ 그 후 70-80년대의 이순신연구는 趙成都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는 이은상 이후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⁵⁸⁾

80년대 이후 수군활동에 대한 연구시각과 연구방법론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향을 띠고 있었다. 예컨대 이순신의 전공을 평가함에 있어서 종래와는 달리 戰略戰術을 통하여 그의 전쟁능력을 평가하려 한 논문들이 나왔고,⁵⁹⁾ 또 鳴梁海戰과 같은 전투사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戰勝要因으로 작용한 關防戰術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⁶⁰⁾ 이렇듯 수군의 전투상황과 전승과정이 구체적인 개별 연구로 밝혀졌다는 점이 1980년대 이후의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성도·김일상·조원래·장학근 등에 의해 진행된 명량해전·한산도해전 등 개별적인 전투사례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⁶¹⁾

56) 李殷相, 1946, 《李忠武公一代記》(국학도서출판부)

李允宰, 1946, 《聖雄李舜臣》(통문관)

57) 趙仁福의《李舜臣戰史研究》(명양사)는 陸軍士官學校 戰史 교재용으로 쓰여졌는데, 이순신의 활동상을 집중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있으며, 崔碩男의《韓國水軍史研究》(명양사)도 이순신의 활동상에 대한 내용을 전체 분량의 2/3 정도로 割愛하고 있다.

58) 그는 해군사관학교에 재직하면서 1973년에 《壬辰狀草》(동원사)를 국역하였고, 1976년에는 《忠武公 李舜臣》(동원사), 1986년에는 《制勝堂과 李忠武公》(예문사)을 저술하였다.

59) 許善道, 1980, <壬辰倭亂에 있어서의 李忠武公의 勝捷 - 그 戰略的 戰術的 意義를 중심으로> 《韓國學論叢》 3(국민대 한국학연구소)

羅鍾宇, 1981, <李舜臣將軍의 戰略戰術> 《奎北史學》 5(전북대 사학회)

60) 趙成都, 1982, <鳴梁海戰研究> 《軍史》 4(전사편찬위원회)

金一相, 1985, <鳴梁海戰의 戰術的 考察> 《國防研究》 28-2(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61) 李載浩, 1981, <壬亂水軍과 李雲龍將軍> 《軍史》 2(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서울)

崔七鎬, 1981, <李舜臣將軍의 戰略構想과 作戰結果> 《軍史》 2(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서울)

임진왜란 발발 4백주년을 넘긴 1990년대 이후 임란해전사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산도해전·부산포해전 등 각 전투별 전사연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조·명·일 삼국의 전선구조를 밝힌 논문이 나왔고, 조선수군의 전략전술 및 함재화력의 성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규수군과 결합된 해상 의병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⁶²⁾ 그리고 이순신과 임진왜란 해전사 전반의 문제를 검토한 박사학위논문도 나오면서 이 분야의 연구의욕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⁶³⁾

또한 장학근·이민웅은 임진왜란의 해전 양상을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陸上戰과도 연계하여 戰局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조선 수군의 勝因과 일본 수군의 敗因을 도출해내는 등 壬辰倭亂 海戰史를 체계화 하였다.⁶⁴⁾ 특히 이민웅은 임진왜란

許善道, 1981, <壬辰倭亂에 있어서의 李忠武公의 勝捷> 《韓國學論叢》 3(국민대 한국학 연구소, 서울)

趙成都, 1982, <鳴梁海戰研究> 《軍史》 4(전사편찬위원회)

張學根, 1983, <壬亂期 水軍에 대한 期待와 運用策> 《海士論文集》 18(해군사관학교, 진해)

金一相, 1985, <鳴梁海戰의 戰術의 考察> 《國防研究》 28-2(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서울)

趙潑來, 1986, <壬亂海戰과 興陽水軍> 《南道文化研究》 2(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순천)

張學根, 1987, 《朝鮮時代 海洋防衛史研究》(해군사관학교, 진해)

趙潑來, 1987, <壬亂 海戰의 勝因과 全羅道海民의 抗戰> 《鳴梁大捷의 再照明》(海南文化院, 해남)

海南文化院, 1987, 《鳴梁大捷의 再照明》(海南文化院, 해남)

62) 趙成都, 1991, <壬辰海戰의 推移와 全羅道 水軍의 戰果> 《壬辰倭亂과 全南》(전라남도)

崔斗煥, 1991, <鳴梁海戰과 강강수월래> 《趙成都教授華甲記念 忠武公李舜臣研究論叢》(연경문화사)

姜永五, 1993, <壬亂期 朝·日의 海軍前略>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해군군사연구실, 진해)

鄭鎮述, 1993, <閑山島海戰研究>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해군군사연구실, 진해)

金鍾基, 1993, <釜山浦海戰>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해군군사연구실, 진해)

鄭杜熙, 1994, <李舜臣 研究> 《李基白古稀祈念 韓國史學論叢》下(일조각, 서울)

張學根, 1995, <倭軍擊退의 戰略·戰術-海戰> 《韓國史》 29(국사편찬위원회, 서울)

朴哲暁, 2002, <丁酉再亂期 朝明 水軍의 聯合作戰과 露梁海戰> 《忠武公 露梁海戰 勝捷際 學術發表》(남해)

63) 金永淑, 1992, 《忠武公 李舜臣 研究》(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서울)

李敏雄, 2002, 《壬辰倭亂 海戰史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64) 張學根, 1995 앞의 논문; 李敏雄, 2002 앞의 논문

의 해전 상황을 초기전쟁기·강화교섭기·정유재란기로 구분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일본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겠다. 또 지금까지의 다른 연구가 초기해전의 전승 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된 것과는 달리 講和交渉期 이후의 水軍 動態와 丁酉再亂期의 상황을 자세히 실증하고 있는 점도 학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수군 활동에 대한 연구 성과는 괄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연구가 전라좌수사 이순신, 또는 수군통제사 이충무공의 업적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朝日 兩國의 水軍 戰鬪力이 部分的, 分散的으로 제시됨으로써 해전의 勝敗要因을 밀도있게 이해하는 데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義兵活動

壬辰倭亂 중의 각 전투에 대한 연구는 특히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데, 대부분이 義兵의 활동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의병에 대한 연구 중 먼저 주목되는 것이 의병의 개념 및 성격에 대한 연구이다.⁶⁵⁾ 그런데 연구자 대부분의 의병에 대한 개념이 國難克復을 위한 노력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여, 전쟁사의 시각에서 의병을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의 해결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壬辰倭亂 중의 의병 전반에 대한 포괄적 연구도 이루어져 있는데,⁶⁶⁾ 의병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한층 진척된 만큼 새로운 차원에서의 개괄이 기대된다.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루고 있는 주제의 범위에 따라서 크게

65) 崔永禧, 1960, <壬亂義兵의 性格> 《史學研究》 8(韓國史學會, 서울)

李載浩, 1967, <壬亂義兵의 一考察> 《歷史學報》 35·26(歷史學會, 서울)

李錫麟, 1985, <壬亂初期 義旅의 構成 및 成分分析> 《湖西文化研究》 5(忠北大 湖西文化研究所, 청주)

趙潑來, 1985, <壬亂初期 全羅義兵의 性格> 《史鄉》 2(公州師大 歷史教育科, 공주)

李章熙, 1992, <壬辰倭亂 義兵性格의 分析> 《韓國史論》 22(國史編纂委員會, 서울)

金康植, 1993, <壬辰倭亂 義兵活動과 性格> 《釜大史學》 17(釜山大 史學會, 부산)

金康植, 1995, <壬辰倭亂 義兵의 性格 變化> 《釜大史學》 19

66) 金錫禧, 1962, <壬辰倭亂의 義兵活動에 關한 一考> 《鄉土서울》 15(서울市史編纂委員會, 서울)

金錫禧, 1972, <壬辰義兵에 關한 再考察> 《釜山大學校論文集》 13(부산대, 부산)

宋正炫, 1995, <義兵의 蜂起> 《韓國史》 29(국사편찬위원회, 서울)

의병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⁶⁷⁾ 각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의 전투와 의병 조직, 起兵의 배경 등을 다룬 개별인물 중심의 연구로⁶⁸⁾ 구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民間叛亂과 의병운동의 연관성에 주목한 경우도 있으며,⁶⁹⁾ 임진왜란 중의 군량조달 방법과 영향을 다룬 연구도 있다.⁷⁰⁾ 이러한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운동에 대한 연구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의병활동의 배경에 관한 문제이다. 독자적으로 이 문제만을 연구한 경우는 없지만, 주로 官軍의 敗北 要因에 주목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관군의 패배 요인을 支配階級의 分裂로 人事와 政策이 문란해짐에 따라 中央政府의 行政이 民과 遊離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⁷¹⁾와 地方 郡縣의 社會經濟의 興件과 租稅制度의 矛盾으로 인한 民心の 離反에서 찾는 견해⁷²⁾로 구분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의병의 기반과 조직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로 社會史的인 입장에서 주목하였는데, 壬辰倭亂 당시 義兵의 상층부로서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주도적인 의병운동을 전개했던 在地士族들의 의병 기반과 조직에 주목한 견해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즉 壬辰倭亂 克服의 중요한 動力의 하나로서 士族들의 활약이 가능할 수 있었던 社會的 動力에 주목하여, 의병활동은 士林들의 鄉村支配策을 바탕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6세기에 士林勢力은 勳戚系의 收奪政治가 鄉村社會의 안정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性理學的인 鄉村 自治制度를 실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鄉民의 호응을 얻음으로서 이것이 의병활동의 기반이 되었다는 견해이다.⁷³⁾ 나아가 在地士族의 의병 기반으로서 通婚圈에 주목하여 그들이 맺

67) 李載浩, 1967, <壬亂義兵의 一考察-특히 官軍과 明軍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35·36合

金錫禧, 1972, <壬辰亂의 義兵에 關한 再考察> 《釜山大學校論文集》 13

崔永禧, 1975, 《壬辰倭亂中の 社會運動-義兵을 中心으로》(韓國研究院)

68) 각 지역의 義兵에 대한 연구는 主要 義兵將을 中心으로 연구되었다. 慶尙道에서는 鄭仁弘, 郭再祐, 金誠一, 金沔, 權應銖, 全羅道の 金千鎰·高敬命, 忠清道の 趙憲, 咸鏡道の 鄭文孚 등을 다룬 論考가 대부분이다.

69) 李章熙, 1968, <壬辰倭亂中 民間叛亂에 대하여> 《鄉土서울》 32

崔謹默, 1974, <壬辰倭亂 때의 湖西地方의 民間叛亂> 《百濟研究》 5

70) 李章熙, 1971, <壬亂中 糧餉考-明兵의 軍糧調達을 中心으로> 《史叢》 15·16合

金鎔坤, 1980,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壬亂 當時를 中心으로> 《史學研究》 32

71) 崔永禧, 1957, <壬辰丁酉亂時 沿海民의 動態> 《史叢》 2(高麗大 史學會)

72) 金潤坤, 1971, <壬辰亂 勃發 直前の 地方郡縣 實態> 《柳洪烈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73) 李泰鎮, 1983, <壬辰倭亂 克復의 社會的 動力-士林의 義兵活動의 基底를 中心으로> 《韓

은 重疊的인 婚姻關係와 經濟적인 기반이 의병운동의 기초가 된다는 견해,⁷⁴⁾ 在地士族들이 亂前에 향촌에서 시행한 鄉村統制 노력과 제도들이 의병 募兵에 활용되었으며 그들의 의병운동이 亂後에 鄉村支配의 재확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⁷⁵⁾

한편 의병활동의 기반을 政治史의인 입장에서 주목한 연구도 있다. 먼저 義兵將인 士族들의 의병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社會經濟的 背景을 규명하고서 亂中의 의병활동이 임진왜란 이후의 政治的인 成長 基盤이 되었다는 견해,⁷⁶⁾ 각 門人의 倡義 人脈을 통해 學問的 紐帶가 의병활동의 기반과 조직에 기여했다는 견해⁷⁷⁾가 있으며, 全羅道의 義兵과 官軍의 黨色에 주목하여 관군과 의병에 동원된 軍事의 實體를 밝힌 연구도 있다.⁷⁸⁾

세 번째는 의병의 성격 문제이다. 壬辰倭亂期 義兵의 성격은 忠義軍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병의 성격을 展開 地域과 倡義 動機에 따라 忠義軍과 鄉兵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가 있지만⁷⁹⁾, 의병의 주도 문제에 대해서는 士族主導論이 일반적이다.⁸⁰⁾ 義兵 上層部의 結合 要因으로는 學緣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의병의 성격과 관련하여 의병활동의 斷切性和 連續性의 문제에 주목하기도 하였는데, 임진란기의 의병활동과 기반이 전후시기와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해서는 士族들의 기반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強化된다는 견해와⁸¹⁾ 약화되어 나간다는 견해⁸²⁾가 있다.

넷째, 의병활동의 전개와 변화 문제다. 지금까지는 주로 初期의 義兵活動에만 주목하여⁸³⁾ 義兵運動의 변화와 의미를 추적하지 못하였다.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전투를 살핀 戰爭史的인 연구가 있다.⁸⁴⁾ 의병의 展開過程에서 의병과 관군과의 관

國史學》5(한국정신문화연구원)

74) 金錫禧, 1989, <郭再祐의 起兵과 社會的 基盤> 《忘憂堂郭再祐研究》2(忘憂堂紀念事業會)

75) 鄭震英, 1987, <壬亂前後 尙州地方 士族의 動向> 《民族文化論叢》8(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76) 高錫珪, 1988, <鄭仁弘의 義兵活動과 山林基盤> 《韓國學報》51(一志社)

77) 李相弼, 1995, <壬亂 倡義人脈 小考> 《慶南文化研究》17(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78) 趙潁來, 1991, 《壬亂 湖南義兵에 관한 研究》(국민대 박사학위논문)

79) 趙潁來, 1989, <壬亂期湖南義兵과 義兵指導層의 性格> 《北岳史論》1(국민대 사학과)

80) 崔永禧, 1960, <壬亂義兵의 性格> 《史學研究》8

李錫麟, 1989, <趙憲을 中心으로 한 壬亂初期의 義兵分析> 《又仁 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간행위원회, 서울)

81) 李樹健, 1984 《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82) 金龍德, 1978 《鄉廳研究》韓國研究院

83) 崔永禧, 1960 <壬亂義兵의 性格> 《史學研究》8

계를 주목하여 양자는 討賊과 勤王에서는 일치하였으나, 전쟁의 功過와 指揮 問題로 인하여 對立의이었음이 밝혀졌다.⁸⁵⁾ 의병의 변화 시기에 대해서는 의병의 解體는 官軍의 整備 이후였다는 견해,⁸⁶⁾ 의병의 활동을 관군과의 추이 속에서 空官期, 官軍 活動期, 明軍 南下期로 나눈 견해가⁸⁷⁾ 있다.

한편 의병의 叛亂軍으로의 전환 문제도 연구되었는데, 戰亂中에 일어난 叛亂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義兵과의 連繫性을 밝혔다. 초기에는 우발적이고 산발적이었던 반란이 중기 이후에 戰爭中에 深化된 生活苦로 말미암아 大規模 叛亂으로 擴大되었다는 견해⁸⁸⁾가 있고, 개별연구를 통해 반란의 주도세력이 민중이었음을 밝힌 연구⁸⁹⁾도 있다.

이상의 기존의 의병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주목해왔다. 먼저 전쟁사적인 측면에서 의병운동이 戰爭의 勝利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과 義兵運動이 戰亂中에 전개될 수 있었던 朝鮮社會의 內部 持續性을 살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의병운동은 16세기의 變化 속에서 壬辰倭亂 시기에 義兵運動을 先導한 士族들과 義兵의 主力을 구성·활동한 民들의 相互 結合으로 가능하였다. 때문에 壬辰倭亂中の 義兵運動은 16세기의 社會構造, 在地士族들의 鄉村支配秩序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의병 연구는 地緣이나 門中 등의 관련에 따라 실상과 거리가 있는 과장된 해석이나 평가를 담은 경우도 없지 않아서 연구 성과에 접근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明軍의 參戰

명군의 참전에 대해서는 그 出兵의 목적이 전쟁이 명의 국경 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있었음을 밝히고 명군이 일으킨 피해를 살핀 劉九成의 연구⁹⁰⁾ 이래

84) 李炯錫, 1974 《壬辰戰亂史》 上·中·下, 國防部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85) 李載浩, 1967, <壬亂 義兵의 一考察-특히 官軍과 明軍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35·36合輯

86) 崔永禧, 1975 앞의 책

87) 구체적으로 尙州 지역의 경우 空官期(1592년 8월~10월), 관군 활동기(1592년 11월~1593년 3월), 명군 남하기(1593년 3월~5월)로 구분하였다(鄭震英, 1987, <壬亂前後 尙州地方 士族의 動向> 《民族文化論叢》 8(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88) 李章熙, 1968, <壬辰倭亂中 民間叛亂에 대하여> 《鄉土서울》 32

89) 崔槿默, 1974, <壬辰倭亂 때의 湖西地方의 民間叛亂> 《百濟研究》 5

朴容淑, 1994, <李夢鶴亂에 대한 考察> 《朝鮮後期 社會史 研究》(늘함께)

90) 劉九成, 1976, <壬亂時 明兵의 來援考-朝鮮의 被害를 中心으로-> 《史叢》 20(고려대 사학회, 서울)

로 명군이 파견된 배경, 전쟁 중의 명군의 작전과 그에 따른 전쟁의 추이 변화, 명군에 대한 군량 보급의 문제, 참전이 미친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이 연구되어 있다.⁹¹⁾ 또한 전쟁이 끝난 뒤 명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려는 주장과 군량 부족 문제 등을 들어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조선측의 입장 사이의 대립을 고찰한 연구도 있어⁹²⁾ 명군의 참전과 전개과정에서의 명군의 역할 등은 어느 정도 규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韓明基는 明나라의 派兵動機가 外形的으로 朝鮮을 救援한다는 것으로 包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中國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⁹³⁾ 또한 그는 명나라에 의해 恣意的으로 講和論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講和論議 과정에서 朝鮮의 意見이나 民族的 感情이 철저히 무시되고, 명나라 관리들의 越權 行爲, 直轄統治論의 擡頭와 內政干涉 등을 통하여 당시 조선의 主權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戰亂 이후 조선에서 再造之恩이라는 觀念이 형성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즉 朝鮮側의 一角에서는 明軍에 대해 否定的으로 보는 視角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날 무렵 朝鮮 朝野에서는 ‘명이 조선을 구원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다’고 여기는 再造之恩이라는 觀念이 형성되고 나아가 명에 대한 慕華意識이 점차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再造之恩의 관념 확산은 向後 兩國 關係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명에게는 朝鮮에 대해 政治·軍事的인 援助를 요구할 수 있는 名分的인 근거가 되었고 朝鮮에게는 큰 짐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만 壬辰倭亂이 동아시아 차원의 대규모의 國際戰爭임에도 불구하고 壬辰倭亂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내지는 個別 三國의 歷史 變化에 미친 영향 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
- 91) 崔韶子, 1977, <壬辰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 《동양사학연구》 11(동양사학회)
 崔韶子, 1992, <壬辰倭禍와 明朝> 《아시아문화》 8(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춘천)
 趙溪來, 1992, <明軍의 出兵과 壬辰戰局의 推移> 《韓國史論》 22(국사편찬위원회, 서울)
 張學根, 1993, <壬亂初期 明軍 來援과 軍糧論議>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해군군사연구실, 진해)
 鄭炳喆, 1996, 《明末清初의 華北社會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서울)
 韓明基, 1997, 《宣祖代 후반~仁祖代 초반 對明關係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서울)
 韓明基, 1997, <壬辰倭亂時期 明軍 參戰의 社會·文化的 影響> 《軍史》 35(국방군사연구소)
 92) 柳承宙, 1985, <壬亂後 明兵의 留兵論과 撤兵論>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정음문화사)
 93) 韓明基, 1999, 《壬辰倭亂과 韓中關係》(역사비평사, 서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선, 명, 일본이 처해 있던 환경을 따져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핀 뒤,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남긴 ‘영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려고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4. 軍事制度・軍事動員體制・作戰指導

壬辰倭亂기는 조선전기의 군사제도가 무너지고 조선후기의 체제로 개편되어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中央軍制의 경우는 五衛體制에서 五軍營體制로 개편되면서 각각의 軍門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창설되었고, 五軍營體制로 정착되기까지 군영마다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중앙군제에 대한 연구는 車文燮이 軍役制度의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訓練都監의 설치를 설명한 것이 시초였다.⁹⁴⁾ 차문섭은 이 연구에서 조선전기 군역제도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私代立의 폐가 극심해진 가운데 壬辰倭亂을 맞음으로써 兵農을 분리한 傭兵制로서의 훈련도감이 성립되고 給料兵制가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전쟁의 와중에 생계 수단이 끊긴 貧民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이 반영되었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서 宣祖年間 성립기의 訓練都監을 연구하여 部隊 編制와 指揮體系 등을 정리하였으며, 임진왜란 초반 전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戚繼光의 浙江兵法이 수용되어 三手兵制와 束伍編制가 訓練都監 組織體系에 반영되었음을 밝혔다. 이상의 중앙군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오군영체제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양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게 되었으나, 오위체제가 어떻게 해체되어 갔는지, 오군영체제가 차츰 갖추어지고 이에 의한 도성방위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 일부 기능이 유지되었을 오위체제와 새로 설치된 군영은 어떠한 관계 속에 운영되었는지는 아직까지는 거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군영이 왕권 및 중앙권력 보호장치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기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전기의 오위체제 자체에도 아직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조선전기보다는 이 시기가 훨씬 관련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시기의 오위체제에 대한 연구가 조선전기의 오위체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地方軍制는 중앙군제에 비해 다소 연구가 부진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94) 車文燮, 1970, <宣祖朝의 訓練都監> 《史學志》 4(檀國大 史學會, 서울)

활발해진 분야이다. 壬辰倭亂을 맞을 당시의 지방군제와 국방체제가 放軍收布의 만연, 鎭管體制의 虛泄化와 그에 대응한 分軍法의 일종으로서의 制勝方略의 실시 등으로 전개되었던 사실은 李泰鎭,⁹⁵⁾ 許善道⁹⁶⁾ 등의 연구에 의해 비교적 소상히 고찰된 바 있다. 壬辰倭亂 이후의 지방군제 연구도 역시 車文燮에 의해 선도되었다.⁹⁷⁾ 그는 營將制와 束伍軍 연구를 통하여 임진왜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地方 軍事力의 增強을 목적으로 絶江兵法에 의해 束伍法으로 편제된 束伍軍이 설치되어 거주지에서 훈련받고 방어를 맡게 되었으며, 鎭管體制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營將을 두어 훈련과 지휘를 맡게 하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차문섭은 兵馬防禦營에 대한 연구를 통해 仁祖代 이후에 영장제가 정착하기 앞서 임진왜란 중에 이미 防禦營이 首都圈 防禦 및 平安道, 咸鏡道의 국방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鎭管體制의 守備이 鎭將을 겸하는 약점을 보완하였음을 밝힘으로써 지방군제 운영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⁸⁾

이밖에 許善道는 國家政策 차원에서 이루어진 地方軍制 強化 논의를 살피는 한편 1차 자료를 통해 진관체제의 문제점이 어떻게 보완되어 갔는가를 밝힌 바 있으며,⁹⁹⁾ 李謙周 또한 束伍軍이 경제적 부담의 문제와 지방군제를 통해 지방민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관련하여 기왕의 진관체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운영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¹⁰⁰⁾ 최근에는 徐台源의 연구에 의해¹⁰¹⁾ 이 시기의 束伍軍 및 營將制의 구체적 모

95) 李泰鎭, 1968, <16世紀末 國防態勢> 《韓國軍制史》(陸軍本部, 서울)

96) 許善道, 1973, <鎭管體制 復舊論研究 -柳成龍의 軍政改革의 基本施策> 《國民大論文集》 1(국민대, 서울)

許善道, 1973·74, <制勝方略 研究 -壬辰倭亂 直前の 防衛體制의 實相>上·下 《震檀學報》 36·37(진단학회, 서울)

97) 車文燮, 1968, <朝鮮後期の 營將에 關하여> 《史叢》 12·13(高麗大 史學會, 서울)

車文燮, 1973, <束伍軍 研究> 《朝鮮時代軍制研究》(檀國大 出版部, 서울)

98) 車文燮, 1990, <朝鮮後期 兵馬防禦營 設置考> 《國史館論叢》 17(國史編纂委員會)[1996,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檀國大 出版部, 서울)에 재수록]

99) 許善道, 1973, <鎭管體制 復舊論研究 -柳成龍의 軍政改革의 基本施策> 《國民大論文集》 1(국민대)

許善道, 1973·74, <制勝方略 研究 -壬辰倭亂 直前の 防衛體制의 實相> 《震檀學報》 36·37

100) 李謙周, 1977, <壬辰倭亂과 軍事制度의 改編> 《韓國軍制史》(육군본부, 서울)

101) 徐台源, 1993, <束伍軍의 設置意義에 對한 研究> 《紀全女子大學論文集》 13

徐台源, 1998, <壬辰倭亂 中 軍制의 改編과 束伍軍> 《朝鮮後期 營將制 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徐台源, 1999, <營將制 시행의 歷史的 背景>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혜안, 서울)

습이 밝혀지긴 했으나 倭亂期の 束伍軍制 운영이 기본적으로 鎭管體制에 입각한 것 인지¹⁰²⁾ 아니면 制勝方略에 입각한 것인지¹⁰³⁾ 아직 분명히 가려져 있지 않다.

또 水軍制度에 대해서는 方相鉉이 水軍統制營의 설치 과정과 시설, 군역과 병선·병기의 배치, 하부 조직 및 지휘체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고찰하여, 壬辰倭亂 당시 李舜臣이 이끈 朝鮮 水軍의 활약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바탕을 마련하였다.¹⁰⁴⁾

한편 壬辰倭亂期는 軍役制度에서 있어서도 朝鮮前期의인 體制가 무너지고 後期的인 體制로 옮겨가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군역제도 이해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연구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車文燮은 조선전기의 군역제도를 兵農一致的 國民皆兵制로 인식하고, 그것이 토지 분급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채 兵種에 따라 保人 지급에 차별이 두어져 모순을 일으켜 무너지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나자 社會經濟的 條件이 미비한 가운데 傭兵制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¹⁰⁵⁾ 尹用出 역시 비슷한 시각에서 임진왜란 시기 軍役制變化를 고찰하면서, 국역을 지는 농민들의 대립 및 放軍收布의 蔓延에 대한 저항이 크게 영향을 끼쳐 徭役의 物納化가 진행되던 것과 같은 脈絡에서 군역의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⁰⁶⁾ 이밖에 給料兵制에 대한 財政負擔과 관련하여 임진왜란이 끝나자 곧 兵農一致的 제도로 還元하자는 논의가 일어난 가운데 給料兵制가 정착되는 과정을 다룬 金鍾洙의 연구,¹⁰⁷⁾ 國境地域이라는 특성에 따라 放軍收布制가 蔓延하지 않아 임진왜란 때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咸鏡道の 土兵을 다룬 李章熙의 연구도 있다.¹⁰⁸⁾

그리고 戰爭 遂行過程에서 軍事指揮體系가 混線을 빚다가 都體察使·都元帥의 監督 및 指揮權이 分化되면서 정리되는 과정을 밝힌 車文燮·沈勝求의 연구는 壬辰倭亂 전반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¹⁰⁹⁾ 또한 戰爭의 勝敗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

102) 대표적 論者로 許善道를 들 수 있다[1992, <朝鮮時代 營將制> 《韓國學論叢》 14(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03) 대표적 論者로 車文燮을 들 수 있다

104) 方相鉉, 1990, <朝鮮後期 水軍統制使研究 -水軍統制營 設置背景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17(국사편찬위원회, 서울)

105) 車文燮, 1961, <壬亂以後의 良役과 均役法の 成立> 《史學研究》 10·11(한국사학회)

106) 尹用出, 1989, <壬辰倭亂 時期 軍役制의 動搖와 改編> 《釜大史學》 13(부산대 사학과)

107) 金鍾洙, 1990, <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改革論> 《韓國史論》 22(서울대 국사학과)

108) 李章熙, 1984, <朝鮮前期 土兵에 對하여> 《藍史鄭在覺教授古稀紀念 東洋史學論叢》.

109) 車文燮, 1993, <朝鮮中期 倭亂期の 軍令·軍事指揮權 研究 -都體察使·都元帥를 중심으로> 《韓國史學》 5(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제인 軍糧의 確保 手段 및 供給에 대한 연구도 나와 있다.¹¹⁰⁾ 이밖에 日本軍의 占領政策의 내용과 그 영향을 살핀 연구¹¹¹⁾, 전쟁 중 兵力을 指揮할 將校層의 배출을 위해 武科가 擴大 實施된 측면에 대한 연구도 있다.¹¹²⁾

5. 軍事施設 · 裝備 · 武器

壬辰倭亂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분야가 城郭을 비롯하여 軍事交通 및 通信施設과 裝備 · 武器에 대한 이해이다. 이들 분야는 실제 軍士動員體制 및 軍事組織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壬辰倭亂期の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車勇杰은 壬辰倭亂이 일어나기 전에 下三道의 山城과 邑城을 수리하는 등의 대비가 있었으나 본래 小規模 侵入을 대비한 것이었던 까닭에 日本軍의 大規模 侵入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었고, 壬辰倭亂을 계기로 中國의 築城術에 절대적 영향을 받았을 뿐만아니라 倭城으로부터도 일부 영향이 있었음을 밝혔다.¹¹³⁾ 또 李章熙는 우리의 전통적인 外敵 防禦手段인 山城을 중심으로 한 戰鬪가 壬辰倭亂 때에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軍糧의 普及에 어려움을 겪는 日本軍에 대해서 民衆의 生活에 被害를 입히는 문제를 甘受하면서 淸野策을 씀으로써 그 效果를 增大시켰음을 論證하였다.¹¹⁴⁾ 그리고 許善道는 壬辰

沈勝求, 1999, <壬辰倭亂期 軍事指揮權의 推移와 성격> 《壬辰倭亂과 權慄將軍》(전쟁 기념관)

110) 李章熙, 1971, <壬亂中 糧餉考 -明兵의 軍糧調達을 중심으로-> 《史叢》 15·16(高麗大史學會, 서울)

金鎔坤, 1981, <朝鮮後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 -宣祖~顯宗年間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9(國史編纂委員會)

金康植, 1996, <壬辰倭亂中の 軍糧 調達策과 影響> 《文化傳統論集》 4(慶星大 鄉土文化研究所)

李章熙, 1996, <壬辰倭亂中の 屯田經營에 대하여> 《東洋學》 26(檀國大 東洋學研究所, 서울)

111) 朴哲晄, 2001, <壬辰倭亂期 日本軍의 占領政策과 影響> 《군사》 4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

112) 沈勝求, 1997, <壬辰倭亂중 武科의 運營實態와 機能> 《朝鮮時代史學報》 1(朝鮮時代史學會, 서울)

113) 車勇杰, 1981, <朝鮮後期 關防施設의 變化過程 -壬辰倭亂前後의 關防施設에 대한 몇 가지 問題-> 《韓國史論》 9(國史編纂委員會, 서울)

114) 李章熙, 1995, <壬亂中 山城修築과 堅壁淸野에 대하여> 《阜村申延澈教授停年紀念史學

倭亂의 마지막 地上戰 激戰地로 朝·明 聯合軍이 水陸 兩面에서 攻城戰을 전개한 倭橋城에 대한 연구를,¹¹⁵⁾ 閔德植은 南原城圖를 중심으로 하여 丁酉再亂 때의 南原城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내놓은 바 있다.¹¹⁶⁾

軍事施設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진한데 비해 軍事裝備에 대한 연구는 火藥武器를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武器體系의 변화에 따라 軍事組織과 戰術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이 설명되고 있다. 高麗末 以來의 火藥武器 發達을 연구해 온 許善道가 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연구자로, 壬辰倭亂을 맞을 무렵에는 화약무기의 발달이 停滯狀態에 있었으나, 壬辰倭亂을 계기로 日·明軍이 사용하는 화약무기의 영향을 받아 다시 다소 활발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밝혔다.¹¹⁷⁾ 이와 아울러 당시 사용되었던 화약무기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壬辰倭亂 당시에 사용한 朝鮮軍과 日本軍의 武器體系의 실상에 대한 연구¹¹⁸⁾에서부터 화약병 기 도입에 따른 戰術의 變化¹¹⁹⁾, 구체적인 戰術 運用과 관련된 연구¹²⁰⁾까지 다양하게

論叢》(일월서각, 서울)

115) 許善道, <順天(昇州) 倭橋城(新城里)考> 《震檀學報》 71·72(震檀學會, 서울)

116) 閔德植, 1993, <丁酉再亂時 川上久國이 그린 南原城圖에 대하여> 《宋甲鎬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117) 許善道, 1966, <李朝中期 火器의 發達 - 停滯期의 趨勢> 上·下 《歷史學報》 30·31(歷史學會, 서울)

許善道, 1969, 《韓國火器發達史》(陸軍士官學校 博物館, 서울)

許善道, 1994,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一潮閣, 서울)

118) 朴俊炳, 1983, <壬亂中 火藥兵器 技術의 開發>(국민대 석사학위논문, 서울)

許善道, 1983·84, <神器秘訣 - 韓國 火藥兵器의 裝放法을 中心으로(상·하)> 《韓國學論叢》 5·6

鄭夏明, 1991, <朝鮮時代의 碗口와 震天雷> 《陸士論文集》 40(육군사관학교, 서울)

朴哲暎, 1994, <壬辰倭亂과 火藥兵器>(건국대 석사논문, 서울)

朴哲暎, 1995, <壬辰倭亂期 朝鮮軍의 火藥兵器에 대한 一考察> 《軍史》 30(국방군사연구소, 서울)

朴哲暎, 1995, <壬辰倭亂期 火藥兵器의 導入과 戰術의 變化> 《學藝誌》 4(육군박물관, 서울)

朴哲暎, 1996, <東아시아 三國의 武器 製造와 交流 - 15.16世紀를 中心으로> 《學藝誌》 5(육군박물관)

朴哲暎, 1996, <壬辰倭亂期 朝日兩國의 武器體系에 관한 一考察> 《韓日關係史研究》 6(한일관계사학회, 서울)

朴哲暎, 2002, <15~16世紀 朝鮮의 火器 發達> 《學藝誌》 9(육군박물관, 서울)

119) 朴哲暎, 1995·1996 앞의 논문

盧永九, 1997, <宣祖代 紀效新書의 普及과 陣法 論議> 《軍史》 34(國防軍史研究所, 서울)

나왔다.

水軍의 裝備와 武器體系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崔永禧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¹²¹⁾ 비교적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연구의 초점이 된 것은 거북선에 대한 것으로, 金在瑾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에 의해 거북선의 起源과 規模 및 構造, 建造 場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¹²²⁾ 그러나 壬辰倭亂 당시의 거북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여, 規模와 構造 등에 대한 異論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壬辰倭亂 때의 朝鮮·日本·明의 군선의 특성을 고찰한 연구와¹²³⁾ 수군의 활약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戰船의 화약무기에 대한 연구가 있다.¹²⁴⁾

-
- 120) 姜性文, 1999, <幸州大捷에서의 權慄의 戰略과 戰術> 《壬辰倭亂과 權慄將軍》(전쟁기념관, 서울)
 姜性文, 2002, <朝鮮의 歷代 火車에 관한 研究> 《學藝志》 9(육군박물관, 서울)
- 121) 崔永禧, 1958, <龜船考> 《史叢》 3(高麗大 史學會, 서울)
- 122) 趙成都, 1965, <龜船考> 《研究報告》 2(海軍士官學校, 진해)
 金在瑾, 1971, 《朝鮮王朝軍船研究》(一潮閣, 서울)
 金龍國, 1977, <거북선의 起源과 發達 -몇가지 問題點의 補完을 겸하여> 《國防史學會報 1977年論文集》(國防史學會, 서울)
 南天祐, 1976, <龜船構造에 대한 再檢討> 《歷史學報》 71(歷史學會, 서울)
 朴惠一, 1979, <李舜臣龜船의 鐵裝甲과 李朝鐵甲의 現存原型과의 對比> 《韓國科學史學會誌》 1-1(한국과학사학회, 서울)
 朴炳柱, 1982, <龜船의 建造場所에 대하여 -雙鳳船所를 中心으로> 《軍史》 5(戰史編纂委員會, 서울)
 朴惠一, 1982, <李舜臣 龜船의 鐵裝甲에 대한 留保의 註釋> 《韓國科學史學會誌》 4-1(한국과학사학회)
 朴惠一, 1985, <李舜臣 龜船(1592)의 鐵裝甲과 慶尙左水使의 鱗甲記錄에 대한 註釋> 《韓國科學史學會誌》 7-1(한국과학사학회)
 金在瑾, 1991, <龜船 크기와 隻數의 變遷> 《國制海洋力심포지움發表文集》(韓國海洋研究所, 서울)
 方相鉉, 1991, <朝鮮 龜船의 接木性研究(劔船과 板屋船 接木)> 《慶熙史學》 16·17合(경희대 사학과)
 張學根, 1995, <軍船으로서의 原型龜船 -龜船改造論을 中心으로> 《昌原史學》 2(창원대 사학회, 창원)
- 123) 金在瑾, 1993, <壬辰倭亂中 朝·日·明 軍船의 特性>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海軍軍史研究室, 진해)
- 124) 鄭鎮述, 1995, <壬亂期 朝鮮水軍의 武器體系> 《學藝誌》 4(陸軍博物館)

6. 其他(降倭, 被拉人, 民衆生活相 등)

이 밖에도 壬辰倭亂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항 일본군 문제(降倭), 朝鮮 被拉人 문제, 민중생활상, 조선의 피해상황, 壬辰倭亂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영향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당시 日本軍에 의해 많은 文化財가 소실되거나 약탈당해 조선은 많은 손해를 보고 이와 반대로 일본은 被拉學者를 이용하여 儒學者를 양성, 學脈을 형성하고 陶磁器 산업을 육성하여 커다란 발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¹²⁵⁾

또 조선은 戰亂으로 인하여 《승정원일기》와 《고려왕조실록》등 중요한 史書와 王宮이나 官衙에 보관하던 각종 서류들이 소실되어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약탈해 간 많은 書籍과 活字, 陶磁器 등 문화재와 被拉人들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켜 에도시대 日本文化의 한 축을 이루었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이와 같은 문화재 훼손과 약탈은 전후 양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부터 문화재 관리국을 주축으로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 조사를 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의 조사만 마친 형편이라고 한다.¹²⁶⁾

125) 金泰俊, 1975, <日本 新儒學의 成立과 朝鮮學者—壬亂前後의 朝鮮文化의 對日影響을 中心하여> 《論文集》 8(明知大, 서울)

李進熙, 1982, 《韓國과 日本文化》(을유문화사, 서울)

李俊杰, 1986, 《朝鮮時代 日本과 書籍交流 研究》(弘益齋)

孫寶基, 1987, <壬辰倭亂과 日本의 活字 印刷術> 《애산학보》 5(애산학회)

孫寶基, 1993, <壬辰倭亂 때 日本으로 건너간 金屬活字 印刷術> 《古印刷文化》 1(청주 고인쇄박물관)

孫弘烈, 1994, <壬辰倭亂과 朝鮮의 醫學> 《清大史林》 6(청주대 사학회, 청주)

126) 文化財研究所, 1991, 《日本所在韓國典籍目錄》

文明大, 1992, <在日 韓國佛畫調査> 《講座美術史》 4(韓國美術史研究所, 서울)

文化財研究所, 1995, 《日本所在文化財圖錄》

柳麻理, 1996, <日本에 있는 韓國佛畫調査-京都·奈良地方을 中心으로> 《文化財》 29(文化財管理局)

1) 降倭

임진왜란 기간동안 일본군 중에서 전쟁 중에 조선에 투항한 사람들, 즉 ‘降倭’라 불리웠던 자들에 대한 연구는 몇 편의 논문만이 있다.¹²⁷⁾ 이들 연구를 통해서 降倭 중의 한 사람인 ‘沙也可’라는 인물이 알려졌고, 대부분의 항왜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조선인 같은 姓名으로 고쳤고, 침략자·가해자라는 측면에서 자신들의 출신을 숨기고 조선사회에서 동화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장희는 왜군이 투항한 원인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있으며, 항왜의 誘致 시기, 항왜의 활용과 전후처리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또 그는 降倭와 被擄朝鮮人과의 차이를 밝혔는데, 조선인 피로인들은 일본의 도자기술을 발전시키고, 신유학의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항왜들에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조총의 사용법이나 신식조총의 제작 그리고 화약제조 등 주로 국방기술에 관한 부분이었고, 생활문화적인 측면은 대단히 미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 被拉人

한국측의 임진왜란 피납인 연구는 일본측의 관련 연구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고, 연구 성과도 적은 편이다. 이는 한국 역사학계의 임진왜란 연구가 주로 義兵이나 軍制 등, 아울러 조선의 勝戰과 관계된 부분, 그 외에 民亂이나 외교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초로 한국적 입장에서 조명한 피로인 연구는 在日 한국인 학자 崔書勉에 의해 이루어졌다.¹²⁸⁾ 그는 임란시 일본측의 납치행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조선인 납치가 우발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申一澈은 일본에 잡혀간 陶工들이 일으킨 일본 도자기 문화를, 특히 李參平의 업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고¹²⁹⁾, 金泰俊은 피로인에 의한 일본에의 문화 傳授를 비교

127) 李丙燾, 1953, <壬亂時의 降倭와 金忠善> 《李忠武公 350週年 記念論叢》(서울)

李章熙, 1971, <壬亂時 投降倭兵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6(韓國史研究會, 서울)

128) 崔書勉, 1973, <壬辰倭亂의 볼모 -‘오다아 줄리아’에 관한 史的 考察-> 《民族文化論叢 (鷺山李殷相博士古稀紀念論文集)》(간행위원회, 서울)

129) 申一澈, 1976, <壬亂때 잡혀간 朝鮮 陶工들-陶祖 李參平碑를 찾아보고> 《文學思想》 1976년 10월호

문화적인 접근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¹³⁰⁾ 또 李元淳은 일본으로 끌려간 피납인의 행방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¹³¹⁾ 특히 그는 임진왜란을 ‘奴隸戰爭’이라 적극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인 奴隸商뿐만 아니라 조선침략 전쟁에 出陣한 각 다이묘(大名;領主)들조차도 노예 획득과 매매로 폭리를 얻으려 하면서 왜란은 노예전쟁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피납인에 대한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피납인의 기록을 문학적 작품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소재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피로인의 기록을 대상으로 한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다수 있으나, 역사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본 논문에서는 그 소개를 생략한다. 다만 李採衍의 《壬辰倭亂 捕虜實記文學 研究》는 피납인의 기록을 ‘實記文學’이란 문학 장르로 구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피납인의 기록을 망라한 研究成果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³²⁾

이밖에도 조선 被拉人 문제가 戰爭後 이들을 送還하는 문제가 朝日 兩國의 交渉 再開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德川幕府의 성립, 近世 日本 儒敎의 성립, 日本 文化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일부가 연구되었다.¹³³⁾

IV. 壬辰倭亂에 대한 새로운 視角 形成을 위한 提言

壬辰倭亂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은 국제전쟁이며, 전쟁 후 삼국의 정치

130) 金泰俊, 1977, <高麗의 子孫들과 壬亂의 陶磁文化><捕虜學者와 日本의 新儒學> 《壬辰倭亂과 朝鮮文化의 東漸》(한국문화원, 서울)

131) 李元淳, 1985, <壬辰·丁酉倭亂時의 朝鮮俘虜 奴隸問題> 《邊太燮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삼영사, 서울)

132) 李採衍, 1995,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박이정출판사, 서울)

李採衍, 1998, <韓·日實記文學에 나타난 壬辰倭亂 體驗의 形象化戰略> 《韓國文學論叢》22(韓國文學會, 서울)

133) 金鍾旭, 1974, <壬亂後의 朝鮮과 日本의 復交> 《日本研究》

李東根, 1995, <壬辰倭亂과 文學의 對應> 《冠岳語文研究》20(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서울)

李乃沃, 1999, <戰爭을 통한 文化交流> 《새롭게 다시 보는 壬辰倭亂》(진주박물관, 진주)

米谷均, 2000, <17세기 朝日관계에서의 朝鮮被虜人의 送還> 《四溟堂 惟政》(사명당기념사업회, 서울)

질서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壬辰倭亂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 이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명칭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壬辰倭亂’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壬辰祖國戰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학문적 용어에 조국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객관적이 되지 못한다. 또 일본에서는 ‘文祿慶長の役’을 주로 쓰고 있는데, ‘朝鮮征伐’ 내지는 ‘朝鮮出兵’이란 표현도 써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다만 최근에 일부 학자의 경우에는 ‘朝鮮侵略’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壬辰倭禍’, ‘萬曆東征’이라고 표현하였다. 壬辰倭亂이란 명칭은 일본이 침략한 사실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지금도 이런 도덕적 평가가 들어가 있는 용어를 쓸 것인가에 대하여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한일역사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명칭으로 그리고 일본사를 하는 사람이나 한국사를 하는 연구자들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국가간에 벌어진 국제전쟁이란 인식 하에서 이에 대한 명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柳在城은 《韓民族戰爭通史 III》에서 壬辰倭亂을 ‘제1차 朝日戰爭’으로 丁酉再亂을 ‘제2차 朝日戰爭’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¹³⁴⁾ 柳在城은 별도의 설명은 달지 않았지만 國家間の 戰爭 概念을 도입하여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 같다. 다만 조일전쟁이란 표현에는 명나라의 參與가 排除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일 것 같다. 따라서 더 적절한 용어가 나오기까지는 일단 壬辰倭亂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겠지만, 보다 客觀的인 用語를 찾았으면 한다.

두 번째로, 壬辰倭亂을 동아시아 삼국이 벌인 國際戰爭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쟁을 朝鮮과 日本의 戰爭으로 局限해서는 안되며, 단순한 民族的 勝敗를 떠나 國內外的 諸般 問題와 相互 연결하여 파악하고, 더 나아가 國際關係라는 그 시대의 구체적인 조건과 연결시켜 파악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壬辰倭亂은 과거 한 때의 전쟁이었다는 지나간 歷史事實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쟁사에서 전쟁의 승패라는 판단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勝利와 敗北라는 단정보다는 戰鬪 狀況과 戰績이라는 客觀的 敘述이 필요하고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과 연결되는 歷史的 連結고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壬辰倭亂의 전개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쟁자료는 그 원래의 성격상 국부적, 또는 일면적인 기술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료 비판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전투상황에 대

134) 柳在城, 1996, <제3장 朝日戰爭> 《韓民族戰爭通史》(國防軍史研究所, 서울) p.128~288

한 연구를 문헌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단계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의 의병 연구에서 종종 인물·지역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장과 문중·향토사학적 성격이 강조됨으로써 의병의 구성이나 활동, 당시 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방적인 자료만에 의존함으로써 偏僻된 서술을 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객관화함으로써 의병의 실질적인 활동과 전략적 의의를 밝히고 아울러 전란중 민중들의 동태와 신분변화, 전란 후 사회의 변화상과 정치적 영향 등이 새롭게 규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壬辰倭亂은 당쟁 등의 政爭과 지리적 결정론, 지정학적 이론 등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壬辰倭亂은 동아시아 삼국 외에도 포르투갈·琉球 및 東南亞軍 등 외국인들의 참전 사실¹³⁵⁾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외국인들의 참전 사실 여부와 의미 등이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는 많은 자료들이 산재해 있으나, 이들 자료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을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자료의 상호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중국측의 자료가 전면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 한일간에 공동연구 되어야 할 과제는 많이 있다.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壬辰倭亂과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관한 문제이다. 壬辰倭亂이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 속에서 갖는 위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중세시기 한일관계의 한 ‘매듭’으로서 壬辰倭亂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체와 개별 국가의 역사 변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것은 실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조·일 수군의 戰力에 관한 문제이다. 이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의 시각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임란해전의 승패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이 없는 가운데 여전히 부분적 분산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임란해전 전반에 걸친 조·일수군의 승패

135) 李鉉淙, 1974, <壬辰倭亂時 琉球 東南亞人の 來援> 《日本學報》2(한국일본학회)

강병구 譯, 1999, 《포르투갈 神父가 본 壬辰倭亂 初期의 韓國》(까뭉이스財團·駐韓포르투갈文化院)

양상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양국의 전투태세와 전술운용, 전선과 화기의 성능 및 그 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해전의 승패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판, 이를 바로잡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이순신의 전략전술과 거북선에 의한 승리》라는 임란해전의 인식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 논리는 일부의 해전과는 관계 있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해전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북선의 문제점과 그것이 갖는 해전에서의 득실문제는 이미 부분적인 연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더욱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壬辰倭亂 시기의 의병운동에 대한 문제이다. 의병 연구는 전쟁사 분야를 제외하면 체계적이지 못하다. 특히 壬辰倭亂이 발발한 16세기 후반의 조선사회는 여러 모순과 갈등이 노정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던 시기였으며, 士林 계열의 각종 제도적인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제의 모순이 완전히 시정되지 못한 과도기였다. 이런 전제 위에서 壬辰倭亂 시기의 의병활동도 연구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더욱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전쟁 발발 이후 조선군의 병력동원체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가동되었으며, 어떻게 기능하고 재편되어 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조선전기 中央軍制인 五衛體制가 어떻게 해체되면서 五軍營體制로 이행되게 되었는가, 전기 地方軍制인 鎭管體制는 임란후 어떻게 변화하면서 東伍軍制나 令將制 속에 흡수되는가, 전쟁의 추이에 따라 조선측의 대응과 동원체제가 어떻게 정비되고 변화되어 나갔는가, 그리고 그러한 동원체제의 재편이 임란이후 조선후기의 군사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이다. 특히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목적과 관련지어 본다면, ‘壬辰倭亂 발발이후 동원체제의 재편’은 전쟁의 추이를 다루면서도 가능한 조선후기 대일관계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결국 19세기중엽 일본의 재침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에 대비한 조선측의 국방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임란이후 동원체제의 재편이 전후 일본의 국내정세 변화를 비롯한 조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연구 시각의 확장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는 壬辰倭亂의 전투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이다. 전쟁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별 전투사의 이해에는 주요 전투지의 성곽, 왜성, 병영시설, 전투지형의 특징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벌어진 전투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초로 할 때에 개별 전투사에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는 降倭, 조선 被拉人, 문화재 약탈 등의 문제이다. 壬辰倭亂은 수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되거나 일본으로 유출되었고, 조선의 陶工, 細工人, 농부, 한의사 등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서 전쟁 복구에 혹사당하였으며, 많은 수는 포르투갈과 일본상인들에 의해 세계 각지로 팔려 나가기도 하였다. 그 숫자는 10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아 일부 연구자의 경우에는 壬辰倭亂을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노예전쟁이라고도 한다. 또 전쟁기간 중에 수없이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약탈되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일 간의 현안 문제라 할 수 있는 교과서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협력하에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납치 실태 파악과 그들의 이후 생활상, 송환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유출된 문화재의 실태 파악을 통해 전쟁기 조선의 문화·경제적 손실의 실상을 규명하고, 현재 일본 내의 각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는 壬辰倭亂 당시의 점령정책과 민중들의 대응, 그리고 전쟁기의 민중들의 생활상의 변화 등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볼 때 壬辰倭亂으로 인한 정치·군사제도상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연구성과가 많지만 사회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약하였다. 그나마 신분제 및 향촌사회의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연구가 있으나, 민중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壬辰倭亂기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그에 따른 민중들의 대응책,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중들의 생활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로 전쟁으로 인해 상호간에 이루어진 文化傳播에 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임란 직후 조선 문물이 일본으로 전래되어 조선문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에 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대상은 대체로 조선성리학(주자학), 금속활자와 서적, 도자기 등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조선성리학의 전래과정과 금속활자와 서적의 약탈규모와 전달과정, 현재의 보존실태, 그 활자와 서적의 구체적인 활용내용, 영향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도자기의 경우에 주로 陶工의 피납과 일본군의 약탈과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밝혀지고 있지만, 납치된 도공들의 일본내에서의 활동이나, 각 지역에서의 陶窯의 분포와 활동현황, 현재까지의 전승관계 등 앞으로 자세하게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울러 전쟁 중이나 직후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전래된 鳥銃·刀劍 등 武器, 天主教, 고추 등 식물에 관한 사항도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戰爭의 終結 處理問題, 戰爭 期間 中の 兩國 내의 反戰意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노력을 傾注할 때에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의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장차 韓日間의 善隣友好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壬辰倭亂 관련 論著目録〉

〈저서〉

- 1, 崔南善, 1931, 《壬辰亂》(東明社, 서울)
- 2, 李允宰, 1946, 《聖雄 李舜臣》(通文館, 서울)
- 3, 李殷相, 1946, 《李忠武公一代記》(國學圖書出版部, 서울)
- 4, 姜興秀, 1948, 《壬辰倭亂과 丙子胡亂》(文運堂, 서울)
- 5, 李芬 / 朴泰遠 譯, 1948, 《李忠武公行錄》(乙酉文化社, 서울)
- 6, 震檀學會 編, 1950, 《李忠武公》(同研社, 서울)
- 7, 權泰益, 1951, 《壬辰倭亂》(啓蒙社, 서울)
- 8, 李忠武公記念事業會 編, 1951, 《民族의 太陽》(李忠武公記念事業會, 부산)
- 9, 震檀學會 編, 1955, 《忠武公讀本》(忠武公記念事業會, 서울)
- 10, 양형섭, 1957, 《1592-1598 壬辰祖國戰爭에서의 人民義兵鬭爭》(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평양)
- 11, 李忠武公記念事業會 全南支部 編, 1958, 《忠武公遺物遺蹟圖鑑》(民族文化社)
- 12, 李殷相 譯, 1960, 《國譯 註解 李忠武公全書 상/하》(忠武會)
- 13, 文教部, 1960, 《李忠武公 亂中日記》(三和印刷株式會社, 서울)
- 14, 박태원, 1960, 《壬辰祖國戰爭》(國立文學藝術書籍出版社)
- 15, 윤석원, 1963, 《郭再祐 指揮下の 嶺南人民의 鬭爭》(朝鮮勞動黨出版社, 평양)
- 16, 윤석원, 1963, 《壬辰祖國戰爭》(朝鮮勞動黨出版社, 평양)
- 17, 趙仁福, 1964, 《李舜臣戰史研究》(鳴洋社, 서울)
- 18, 최길성, 1964, 《壬辰祖國戰爭時期 우리 水軍의 鬭爭》(社會科學出版社)
- 19, 李殷直, 1966, 《朝鮮名將傳》(新興書店)
- 20, 李炯錫, 1967, 《壬辰戰亂史》상.하(壬辰戰亂刊行要院會, 서울)
- 21, 李殷相 譯, 1968, 《亂中日記》(玄岩社, 서울)
- 22, 南廣祐, 1969, 《朝鮮 漢字音研究 -壬亂前 現實漢字音を 中心으로-》(東亞出版社, 서울)
- 23, 李殷相, 1969, 《聖雄 李舜臣》(民族文化協會 附設 햇불사, 서울)
- 24, 金義煥, 1972, 《人間 李舜臣傳》(연문출판사)
- 25, 東亞文化研究所 編, 1972, 《壬辰亂史-국외자료》(서울대출판부, 서울)
- 26, 成東鎬 編, 1972, 《忠武公逸話》(瑞文堂, 서울)
- 27, 李奭浩 譯, 1973, 《亂中日記》(集文堂, 서울)

- 28, 趙成都 譯, 1973, 《壬辰狀草》(同元社, 서울)
- 29, 李殷相, 1974, 《忠武公의 生涯와 思想》, 삼성문화재단
- 30, 李炯錫, 1974, 《壬辰戰亂史》상.중.하(新現實社, 서울)
- 31, 崔永禧, 1974, 《壬辰倭亂》(世宗大王記念事業會, 서울)
- 32, 李殷相, 1975, 《聖雄 李舜臣》(三中堂, 서울)
- 33, 李殷相 譯, 1975, 《亂中日記》(三中堂, 서울)
- 34, 崔永禧, 1975, 《壬辰倭亂중의 社會動態》(韓國研究院, 서울)
- 35, 趙成都, 1976, 《忠武公 李舜臣》(同元社, 서울)
- 36, 金泰俊, 1977, 《壬辰倭亂과 朝鮮文化의 東漸》(韓國研究院, 서울)
- 37, 李殷相 譯, 1977, 《亂中日記》(李忠武公文獻編纂委員會, 서울)
- 38, 李鉉淙 譯, 1977, 《趙靖先生文集》(趙靖先生文集刊行委員會)
- 39, 蘇在英, 1977, 《壬辰錄》(螢雪出版社, 서울)
- 40, 韓國軍事研究室, 1977, 《韓國軍制史》(陸軍本部)
- 41, 金在瑾, 1978, 《거북선의 神話》(正宇社, 서울)
- 42, 姜舞鶴, 1979, 《忠武公兵法》(家庭文庫社, 서울)
- 43, 蘇在英, 1980, 《壬丙洋亂과 文學意識》(韓國研究院, 서울)
- 44, 姜熙英, 1981, 《姜弘立將軍-密旨에 담긴 民族의 秘事-》(野實社, 서울)
- 45, 李進熙, 1982, 《韓國과 日本文化》(乙酉文化社, 서울)
- 46, 趙浚來, 1982, 《壬亂義兵將 金千鎰研究》(學文社, 서울)
- 47, 李在範, 1983, 《元均正論》(啓明社, 서울)
- 48, 李榮煥, 1984, 《李英男將軍傳記》(鎭川文化院, 대전)
- 49, 亞細亞文化社, 1984, 《壬辰倭亂關係文獻叢刊》 1-3(亞細亞文化社, 서울)
- 50, 朴性植, 1986, 《壬辰倭亂의 研究》(嶺南大 博士學位論文)
- 51, 李俊杰, 1986, 《朝鮮時代 日本과 書籍交流 研究》(弘益齋, 서울)
- 52, 林哲鎬, 1986, 《壬辰錄研究》(正音社, 서울)
- 53, 趙成都, 1986, 《制勝堂과 李忠武公》(藝文社, 서울)
- 54, 國際韓國學會, 1987, 《실크로드와 韓國文學》(소나무, 서울)
- 55, 朴哲, 1987, 《세스페데스》(西江大學校出版部, 서울)
- 56, 徐仁漢, 1987, 《壬辰倭亂史》(戰史編纂委員會, 서울)
- 57, 海南文化院, 1987, 《鳴梁大捷의 再照明》(海南文化院, 해남)
- 58, 南原文化院, 1989, 《丁酉再亂 南原城싸움》(南原文化院, 남원)
- 59, 林哲鎬, 1989, 《說話와 民衆의 歷史意識 -壬辰倭亂 說話를 中心으로-》(集文堂, 서울)

72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 60, 鄭光洙, 1989, 《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精神世界社, 서울)
- 61, 河宇鳳, 1989,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一志社, 서울)
- 62,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90, 《慶北義兵史》(慶尙北道, 대구)
- 63, 韋旭全, 1990, 《抗倭演義(壬辰錄)研究》(亞細亞文化社, 서울)
- 64, 全北鄉土文化研究會 편, 1990, 《全北義兵史》상·하(全北鄉土文化研究會, 전주)
- 65, 全羅南道壬亂史料編纂委員會, 1990·92, 《湖南地方 壬辰倭亂 史料集》I-IV(全羅南道, 광주)
- 66, 孫承喆, 1991, 《近世韓日關係史研究》(理論과 實踐, 서울)
- 67, 靈光鄉土文化研究會, 1991, 《靈光壬亂史料集》(靈光鄉土文化研究會, 광주)
- 68, 金台俊 외, 1992, 《壬辰倭亂과 韓國文學》(民音社, 서울)
- 69, 南天祐, 1992, 《긴 칼 옆에 차고 戊樓에 홀로 앉아 -李舜臣의 智略과 죽음의 疑問》(修文書館서울)
- 70, 木浦大博物館, 1992, 《壬辰·丁酉倭亂과 珍島》(木浦市)
- 71, 文榮龜, 1992, 《全羅左水營研究》(大韓建設振興會)
- 72, 李元勝, 1992, 《柳成龍의 軍事分野業績 再照明》(청문각)
- 73, 壬亂功臣崇慕會 편, 1992, 《壬亂功臣遺史誌》(
- 74, 崔碩男, 1992, 《救國의 名將 李舜臣(상/하)》(교학사)
- 75, 黃浪江, 1992,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일지사)
- 76, 金弘, 1993, 《壬辰倭亂의 軍事史的 研究》(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77, 李錫麟, 1993, 《壬亂義兵將 趙憲 研究》(신구문화사)
- 78, 梁銀容, 1993,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경서원)
- 79, 崔孝軾, 1993, 《慶州府의 壬辰抗爭史》(慶州市文化院, 경주)
- 80, 國立大邱博物館, 1994, 《嶺南의 名儒와 壬辰倭亂》(國立大邱博物館, 대구)
- 81, 서필량, 1994, 《壬辰倭亂-그것은 그렇지 않았다》(瑞文堂, 서울)
- 82, 양재숙, 1994, 《다시 쓰는 壬辰倭亂》 I/II(高麗苑, 서울)
- 83, 金文吉, 1995, 《壬辰倭亂은 文化戰爭이다》(혜안, 서울)
- 84, 小川晴久(하우봉 역), 1995, 《韓國實學과 日本》(한울, 서울)
- 85, 李採衍, 1995,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박이정, 서울)
- 86, 金鍾洙, 1996, 《朝鮮後期 訓練都監의 設立과 運營》(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87, 李在範, 1996, 《元均을 위한 辨明-기록을 남기지 않은 자의 비애》(학민사, 서울)
- 88, 임철호, 1996, 《壬辰錄 異本研究 I-IV》(전주대학교출판부)
- 89, 趙重和, 1996, 《다시쓰는 壬辰倭亂史》(학민사)
- 90, 車文燮, 1996, 《朝鮮時代 軍事關係 연구》(단대출판부)

- 91, 崔斗煥 譯, 1996, 《새번역 亂中日記》(학민사)
- 92, 順天大學校博物館, 1997, 《順天 劍丹山城과 倭城》(順天市)
- 93, 韓國歷史研究會, 1997, 《한국역사 속의 전쟁》(청년사)
- 94, 郭鎬濟, 1998, 《壬辰倭亂기 호서의병연구》(충남대 박사논문)
- 95, 李照永, 1998, 《李舜臣과 王朝實錄》(대성문화사)
- 96, 朴哲晄, 李相勳, 1998, 《忠武公 李舜臣》(문화관광부 대한출판문화협회)
- 97, 韓日關係史學會, 1998, 《韓日兩國의 尙弧인식》(국학자료원)
- 98, 國立晉州博物館, 1999, 《싸워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는기는 어렵다-史料로 보는 壬辰倭亂》(혜안)
- 99, 崔永禧 외, 1999, 《새롭게 다시 보는 壬辰倭亂》(진주박물관)
- 100, 韓明基, 1999, 《壬辰倭亂과 韓中關係》(역사비평사)
- 101, 四溟堂記念事業會, 2000,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지식산업사)
- 102, 장경남, 2000, 《壬辰倭亂의 문학적 형상화》(아세아문화사)
- 103, 허용기, 2000, 忠武公 金時敏 將軍 史料集(도서출판 한국문화)
- 104, 金康植, 2001,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運動》(혜안)
- 105, 崔文正, 2001, 《壬辰錄研究》(박이정)
- 106, 金州植·李敏雄·鄭鎮述 編, 2002, 《朝鮮時代 水軍 關聯 史料集 I~V》(해군사관학교)
- 107, 李章熙, 朴哲晄 외, 2003, 《望菴 邊以中 研究》(봉암서원)
- 108, 崔官, 2003, 《日本과 壬辰倭亂》(고려대학교 출판부)

〈논문〉

- 1, 정태민, 1948, <壬辰亂 중의 농민봉기> 《신천지》 3-10
- 2, 成海, 1949, <조선명장론(리순신장군 편 상)> 《력사제문제》 6
- 3, 成海, 1949, <조선명장론(리순신장군 편 중)> 《력사제문제》 7
- 4, 成海, 1949, <조선명장론(리순신장군 편 하)> 《력사제문제》 8
- 5, 韓祐勛, 1952, <壬辰亂 原因에 관한 검토 -豐臣秀吉의 전쟁도발 원인에 대하여> 《역사학보》 1 (역사학회)
- 6, 金庠基, 1953, <東西思想으로 본 忠武公의 偉勳> 《이충무공350주기기념논총》(동연사)
- 7, 柳洪烈, 1953, <李舜臣將軍의 生涯> 《李忠武公》(동연사)
- 8, 李秉岐, 1953, <忠武公의 文學> 《李忠武公》(동연사)
- 9, 李丙燾, 1953, <壬亂時 降倭와 金忠善> 《이충무공 350주기 기념논총》

- 10, 李弘植, 1954, <壬辰亂과 古典流失> 《韓國古文化論考》
- 11, 리춘성, 1955, <리순신 將軍의 生涯와 活動> 《력사과학》
- 12, 宋晞, 1955, <韓國抗日名將 李舜臣> 《중한문화논집》
- 13, 崔永禧, 1957, <임진정유란시 연해민의 동태> 《史叢》 2(고려대 사학회, 서울)
- 14, 金永上, 1958, <世宗大王과 李忠武公의 탄생지> 《향토서울》 3(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 15, 李殷相, 1958, <忠武公과 그의 時文> 《논문집》 1(청구대)
- 16, 朴種和, 1959, <四溟大師와 壬辰倭亂> 《백성옥박사 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 17, 李鉉淙, 1961, <명사집대고> 《향토서울》 12(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 18, 車文燮, 1961,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상/하)> 《史學研究》 10·11(한국사학회, 서울)
- 19, 金錫禧, 1962, <壬辰倭亂의 의병운동에 관한 일고> 《향토서울》 15(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 20, 이승녕, 1962, <壬辰倭亂과 민간인의 피해에 대하여>, 《역사학보》 17·18합(역사학회, 서울)
- 21, 李鉉淙, 1963, <壬辰倭亂과 서울> 《향토서울》 18(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 22, 禹貞相, 1963, <南北漢山 城義僧防番錢에 대하여>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경서원, 서울)
- 23, 禹貞相, 1963,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에 대하여> 《佛敎學報》 1(東國大 佛敎文化研究所, 서울)
- 24, 丁仲煥, 1963, <일본기록에서 본 壬辰亂 -부산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향도부산》 3(부산시사편찬위원회, 서울)
- 25, 金良善, 1964, <壬辰倭亂 從軍神父 세스페데스의 來韓活動과 그 영향> 《史學研究》 18(한국사학회, 서울)
- 26, 金龍國, 1964, <壬辰倭亂中 서울修復戰과 防衛計劃> 《鄉土서울》 22(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 27, 朴容玉, 1964, <丁卯亂朝鮮被擄人刷 贖還考> 《史學研究》 18(韓國史學會, 서울)
- 28, 崔永禧, 1964, <壬辰倭亂 중의 대명사대에 대하여> 《史學研究》 18(한국사학회, 서울)
- 29, 權相老, 1965, <泗溟堂-軍服으로 바꾼 袈裟-> 《韓國의 人間像》 2(新丘文化社, 서울)
- 30, 李載浩, 1965, <柳成龍(1542~1607)-倭亂을 극복한 名相-> 《人物韓國史》 3(博友社, 서울)
- 31, 장덕순, 1965, <고전문학에 나타난 대일감정>, 《동아문화》 4(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32, 車文燮, 1965, <신립 -탄금대에 뿌린 피> 《한국의 인간상》 5(신구문화사, 서울)
- 33, 崔碩男, 1965, <이순신 -민족의 성웅> 《인물한국사》 3(박우사, 서울)
- 34, 崔永禧, 1965, <柳成龍-戰亂 속의 기동-> 《한국의 인간상》 1(新丘文化社, 서울)
- 35, 崔永禧, 1965, <이순신 -민족주원의 성웅> 《한국의 인간상》 2(신구문화사, 서울)

- 36, 金斗鍾, 1966, <壬辰亂後의 活字印本-實錄字와 訓鍊都監字> 《震檀學報》 29:30합(진단학회, 서울)
- 37, 李丙燾, 1966, <漢陽城郭考-특히 조선전기(임란이전)를 중심으로-> 《향토서울》 29(서울시사 편찬위원회, 서울)
- 38, 鄭夏明, 1966, <柳成龍의 軍事觀의 一斑-그의 山城說-> 《陸士論文集》 4(陸軍士官學校, 서울)
- 39, 李基平, 1967, <李忠武公研究> 《論文集》 4(公州教育大學, 공주)
- 40, 이영래, 1967, <壬辰倭亂의 경제사적 의의> 《경상논집》 3(건국대 경상학회, 서울)
- 41, 李載浩, 1967, <임란의병의 일고찰 -관군과 명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35.36합(역사학회, 서울)
- 42, 金龍國, 1968, <壬辰倭亂후 龜船의 변천과정> 《학술원논문집》 7(학술원, 서울)
- 43, 李章熙, 1968, <壬辰倭亂중 民間叛亂에 대하여> 《향토서울》 32(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 44, 丁淳睦, 1968, <李退溪의 사상이 근세일본교육에 미친 영향> 《中央大師大學報》 4(서울)
- 45, 柳承宙, 1969, <朝鮮後期軍需鑛工業의 發展 -鳥銃問題를 中心으로-> 《史學志》 3(단국대 사학회, 서울)
- 46, 李章熙, 1969, <임란 海西義兵에 대한 일고찰 -연안대첩을 중심으로-> 《史叢》 14(고려대 사학회, 서울)
- 47, 李章熙, 1969, <壬辰倭亂 僧軍考> 《이흥직박사 회갑기념 한국사논총》(간행위원회, 서울)
- 48, 김성태, 1970, <이순신장군의 성격 연구> 《행동과학연구》 1(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서울)
- 49, 김일기, 1970, <한산대첩과 그 영향> 《논문집》 2(삼척농업전문학교, 삼척)
- 50, 丁仲煥, 1970, <壬辰倭亂과 부산 사적 -시민의 날 제정에 즈음하여-> 《박원표선생 회갑기념 부산사연구논총》(부산)
- 51, 崔槿默, 1970, <임란때의 호서의병에 대하여> 《논문집》 9(인문사회과학편) (충남대, 대전)
- 52, 金潤坤, 1971, <壬辰亂 勃發 直前の 地方郡縣 實態-丹陽郡과 彥陽縣의 경우> 《惠庵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惠庵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간행위원회
- 53, 金在瑾, 1971, <壬辰倭亂 中の 軍船> 《朝鮮王朝軍船研究》(일조각, 서울)
- 54, 李章熙, 1971, <임란중 糧餉考 -明兵의 軍糧調達을 중심으로-> 《史叢》 15.16합(고려대 사학회, 서울)
- 55, 李章熙, 1971, <임란중 投降倭兵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6(한국사연구회, 서울)
- 56, 金錫禧, 1972, <壬辰亂의 의병에 관한 재고찰> 《논문집》 13(부산대, 부산)
- 57, 宋正炫, 1972, <壬辰倭亂과 호남의병> 《역사학연구》 4(전남대 사학회, 광주)
- 58, 李章熙, 1972, <임란전의 西北邊界政策> 《백산학보》 12(백산학회, 서울)
- 59, 琴章泰, 1973, <忠節精神-忠武公 李舜臣將軍을 中心으로-> 《사문논총》 1(사문학회)

76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 60, 吳圭煥, 1973, <東西洋의 二大提督-忠武公과 NELSON>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 보고서(인문과학)》 4-15(문교부, 서울)
- 61, 李乙浩, 1973, <정유피란기> 《호남문화연구》 5(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광주)
- 62, 崔書勉, 1973, <壬辰倭亂의 볼모 -'오다아 줄리아'에 관한 사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노산 이은상박사 고회기념논문집)》
- 63, 許善道, 1973, <'鎮管體制復舊論'研究> 《國民大學論文集》 5(국민대학교, 서울)
- 64, 許善道, 1973, <制勝方略 研究(上)-壬辰倭亂 直前 防衛體制的 實相> 《震檀學報》 36(진 단학회, 서울)
- 65, 黃夏鉉, 1973, <壬辰倭亂이후의 大同 및 均役의 재정사적연구>(한양대 석사학위논문, 서울)
- 66, 金在瑾, 1974, <龜船의 造船學的 考察> 《學術院論文集》 13(대한민국 학술원, 서울)
- 67, 李鉉淙, 1974, <壬辰倭亂시 琉球·東南亞人의 來援> 《일본학보》 2
- 68, 崔槿默, 1974, <壬辰倭亂때의 호서지방의 민간반란> 《백제연구》 5(충남대 백제연구소, 대전)
- 69, 許善道, 1974, <制勝方略 研究(下)-壬辰倭亂 直前 防衛體制的 實相> 《震檀學報》 37(진 단학회)
- 70, 洪淳祿, 1974, <조선조 官人國家의 변질과정(1) -그 서론적 고찰(壬辰倭亂 전의 국내 정치 상황)-> 《영남사학》 3(영남대 사학회, 경산)
- 71, 권중현, 1975, <壬辰倭亂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경희대 석사논문, 서울)
- 72, 金泰俊, 1975, <日本 新儒學의 成立과 朝鮮學者-壬亂前後의 朝鮮文化의 對日影響을 중심 하여-> 《明大論文集》 8(명지대학교, 서울)
- 73, 趙啓纘, 1975, <壬辰倭亂기의 身分向上에 관한 小考> 《동아논총》 12(인문과학편)(동아대)
- 74, 崔韶子, 1975, <清廷에서의 昭顯世子(1637~1645)>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일 조각)
- 75, 金在瑾, 1976, <板屋船考> 《韓國史論》 3(한국사학회, 서울)
- 76, 劉九成, 1976, <壬亂時 明兵의 來援考> 《史叢》 20(고려대 사학회, 서울)
- 77, 李東俊, 1976, <重峯 趙憲의 歷史意識과 國難對策> 《同大論叢》 6(동덕여자대학교, 서울)
- 78, 李章熙, 1976, <壬辰倭亂> 《韓國史論》 4(조선후기편)(국사편찬위원회, 서울)
- 79, 李謙周, 1977, <壬辰倭亂과 軍事制度의 確立> 《韓國軍制史》(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서울)
- 80, 崔韶子, 1977, <壬辰亂시 명의 파병에 대한 논고> 《東洋史學研究》 11
- 81, 李鉉淙, 1978, <민족발전을 위협한 국난> 《길》 5(충력안보중앙협의회)
- 82, 崔韶子, 1978, <壬辰亂시 조선지배층의 대명의식 -내부의 문제에서 본-> 《고고미술》 136~137

- 83, 金東旭, 1979, <壬亂前後期の 服飾構造- 최근출토 遺衣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22 (연세대 국학연구원, 서울)
- 84, 朴惠一, 1979, <李舜臣龜船의 鐵裝甲과 李朝鐵甲의 현재원형과의 대비> 《한국과학사학회지》 1-1(한국과학사학회, 서울)
- 85, 車文燮, 1979, <宣祖朝의 訓練都監> 《史學志》 4(단국대 사학회, 서울)
- 86, 黃夏鉉, 1979, <壬辰倭亂과 國家財政의 破綻> 《경제연구》 1(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서울)
- 87, 朴吉雄, 1980, <忠武公精神 考察-孝를 中心으로-> 《논문집》 16(전주교육대학, 전주)
- 88, 李泰鎮, 1980, <壬辰倭亂에 대한 이해의 몇가지 문제> 《군사》 1(전사편찬위원회, 서울)
- 89, 金鎔坤, 1981,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壬亂當時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32(한국사학회, 서울)
- 90, 金顯吉, 1981, <壬辰倭亂과 義兵將 趙熊> 《湖西文化研究》 1(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청주)
- 91, 羅鍾宇, 1981,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전북사학》 5(전북대학교 사학회, 전주)
- 92, 柳承宙, 1981, <朝鮮前期 軍需工業에 대한 一研究-壬亂中の 武器製造實態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32
- 93, 柳承宙, 1981, <朝鮮後期 軍需工業에 관한 一研究-軍營門의 火藥製造實態를 中心으로-> 《군사》 3(戰史編纂委員會, 서울)
- 94, 李載浩, 1981, <壬亂 水軍과 李雲龍將軍> 《軍史》 2(戰史編纂委員會, 서울)
- 95, 李貞一, 1981, <원균론> 《역사학보》 89(역사학회, 서울)
- 96, 丁仲煥, 1981, <壬辰倭亂시의 邑산지역전투> 《군사》 2(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서울)
- 97, 車勇杰, 1981, <朝鮮後期 關防施設의 變化過程-壬辰倭亂 前後의 關防施設에 對한 몇가지 問題-> 《韓國史論》 9(국사편찬위원회, 서울)
- 98, 崔永禧, 1981, <임란의병의 성격> 《군사》 2(전사편찬위원회, 서울)
- 99, 崔七鎬, 1981, <李舜臣將軍의 戰略構想과 作戰結果> 《군사》 2(전사편찬위원회, 서울)
- 100, 許善道, 1981, <壬辰倭亂에 있어서의 李忠武公의 勝捷-그 전략적 전술적 的의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1(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서울)
- 101, W. J. Boot, 1981, <퇴계학과 일본> 《퇴계학보》 31(퇴계학연구원)
- 102, 甘成海, 1982, <壬亂 初期 尙州戰鬪와 金宗武> 《軍史》 5(전사편찬위원회, 서울)
- 103, 姜英哲, 1982, <壬辰倭亂과 元均> 《史學研究》 35(한국사학회, 서울)
- 104, 金鎮鳳, 1982, <壬辰亂中 湖西地方의 義兵活動과 地方士民의 動態에 관한 研究-趙憲의 義兵活動을 中心으로> 《史學研究》 34(한국사학회, 서울)
- 105, 羅鍾宇, 1982, <壬辰倭亂의 역사적배경> 《향토문화》 7(향토문화개발협의회)

- 106, 朴炳柱, 1982, <龜船의 建造場所에 대하여-雙鳳船所를 中心으로> 《軍史》 5(전사편찬위원회, 서울)
- 107, 朴性植, 1982, <癸巳 晋州城戰鬪 三壯士攷> 《大丘史學》 20·21합(대구사학회, 대구)
- 108, 朴性植, 1982, <癸巳 晋州城戰鬪 小考> 《慶北史學》 4(경북대 사학과, 대구)
- 109, 朴惠一, 1982, <李舜臣龜船의 鐵裝甲에 對한 補遺의 註釋> 《한국과학사학회지》 4-1(한국과학사학회, 서울)
- 110, 宋正炫, 1982, <壬辰倭亂의 호남의병활동 -초기의병을 중심으로> 《향토문화》 7(향토문화개발협의회)
- 111, 李進熙, 1982, <壬辰倭亂과 전후의 韓 日關係> 《日本 教科書와 韓國史의 歪曲》(民知社)
- 112, 丁奎福 高憲植, 1982, <山城日記의 文獻學的研究> 《교육논총》 12(高麗大 教育大學院, 서울)
- 113, 金玉姬, 1983, <壬亂때 被拉된 朝鮮女性들의 日本에서의 殉教와 信仰生活> 《史學研究》 36(한국사학회, 서울)
- 114, 金鎮鳳·車勇杰·梁起錫, 1983, <朝鮮時代 軍役資源의 變動에 대한 研究; 湖西地方의 경우를 中心으로> 《湖西文化研究》 3(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청주)
- 115, 金成基, 1983, <韓國 軍談小說 分析研究-壬辰錄과 朴氏夫人傳을 對象으로-> 《語文學》 2(國民大學校 語文學研究所, 서울)
- 116, 李熙煥, 1983, <丁酉再亂時의 南原城戰鬪에 對하여> 《진라사학》 7(전북대 사학회, 전주)
- 117, 林哲鎬, 1983, <李如松 說話 研究; 壬亂說話考2> 《국어국문학》 90(국어국문학회)
- 118, 文璇奎, 1983, <黃進-壬辰倭亂의 名將> 《全北人物誌》上(全北愛鄉運動本部)
- 119, 宋正炫, 1983, <壬辰倭亂에 있어서의 호남의병> 《역사학연구》 11(전남대 사학회, 광주)
- 120, 李泰鎮, 1983, <壬辰倭亂克服의 社會的 動力-士林의 의병활동기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5(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성남)
- 121, 林秉燦, 1983, <李英男-壬辰倭亂의 水軍忠將> 《全北人物誌》下(全北愛鄉運動本部)
- 122, 林哲鎬, 1983, <金德齡說話研究-壬亂說話考-> 《韓國言語文學》 22(韓國言語文學會)
- 123, 趙炳喜, 1983, <宋象賢-壬辰倭亂의 殉節功臣-> 《全北人物誌》上(全北愛鄉運動本部)
- 124, 趙奭來, 1983, <壬亂關係 傳說에 나타난 民衆意識 -진주지성 전설을 중심으로> 《진주 문화》 4(진주교대 진주문화연구원, 진주)
- 125, 許善道, 1983, <壬辰倭亂의 극북과 嶺右義兵 -그 전략적 의의를 중심으로> 《진주문화》 4(진주교대 진주문화연구원, 진주)
- 126, 文守弘, 1984, <壬亂중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 《素軒南都泳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간행위원회, 서울)
- 127, 林哲鎬, 1984, <四溟堂 說話研究> 《韓國言語文學》 23(韓國言語文學會)

- 128, 許善道, 1984, <壬辰倭亂에 대한 새로운 인식 -승패의 실상을 중심으로> 《한국학》 31 (한국학연구소, 서울)
- 129, 洪性德, 1984, <丁酉倭亂 以後 明日停戰協商과 朝明關係 > 《전북사학》 8(전북대사학과, 전주)
- 130, 金一相, 1985, <鳴梁海戰의 戰術의 考察> 《國防研究》 28(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서울)
- 131, 金泰俊, 1985, <壬辰倭亂을 통한 平和의 精神史> 《동양학》 15(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서울)
- 132, 金鉉丘, 1985, <朝鮮後期 統制使에 관한 研究-그 職任을 中心으로> 《釜大史學》 9(부산대)
- 133, 柳承宙, 1985, <倭亂後 明軍의 留兵論과 撤兵論>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서울)
- 134, 李錫麟, 1985, <壬亂初期 義旅의 構成 及 性分析; 重峯義旅를 中心으로> 《湖西文化研究》 5(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청주)
- 135, 朴惠一, 1985, <李舜臣龜船(1592)의 鐵裝甲과 慶尙左水使의 鱗甲記錄(1748)에 대한 註釋> 《한국과학사학회지》 7-1(韓國科學史學會, 서울)
- 136, 李樹鳳, 1985, <盤谷의 亂中日記攷 I> 《湖西文化研究》 5(忠北大 湖西文化研究所, 청주)
- 137, 李載浩, 1985, <宣祖修正實錄 記事의 疑點에 對한 辨析-특히 李栗谷의 '十萬養兵論'과 柳西厓의 義兵不可論에 對하여> 《大東文化研究》 19(成均館大 大同文化研究院, 서울)
- 138, 趙媛來, 1985, <壬辰倭亂기 전라도의병의 성격 -임진년 영남지역에서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史鄉》 2(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공주)
- 139, 陳捷先, 1985, <壬辰倭亂 이후의 明朝> 《동양학》 15(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서울)
- 140, 崔永禧, 1985, <壬辰倭亂중의 민중과 의병> 《동양학》 15(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서울)
- 141, 許善道, 1985, <壬辰倭亂론 -올바르고 새로운 인식> 《동양학》 15(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서울)
- 142, 許善道, 1985, <壬辰倭亂론 -올바르고 새로운 인식> 《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정음문화사, 서울)
- 143, 金鉉龍, 1986, <壬亂期の 構成說話考; 於于野譚 說화를 중심으로> 《人文科學論叢》 18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서울)
- 144, 柳在春, 1986, <壬亂後 韓日國交 再開와 國書改作에 관한 研究> 《江原史學》 2(강원대, 춘천)
- 145, 李康七, 1986, <韓國의 火砲-國防科學技術 指定文化財를 中心으로> 《文化財》 19(文化財管理局, 서울)

- 146, 李敏昊, 1986, <일본 江戸時代의 退溪學 소고> 《사학지》 20(단국대사학회, 서울)
- 147, 李泰鎮, 1986, <16世紀 東아시아의 歷史的狀況과 文化> 《韓國社會史研究》(지식산업사, 서울)
- 148, 趙浚來, 1986, <임란 해전과 홍양수군> 《남도문화연구》 2(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순천)
- 149, 金東旭, 1987, <壬亂·丙亂 後의 안동김씨 一括遺衣>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출토유물 및 近代服飾論考》(충남대학교박물관, 대전)
- 150, 羅鐘宇, 1987, <임란의병과 장성남문 창의> 《향토문화연구》 4(원광대 향토문화연구소, 이리)
- 151, 閔德基, 1987, <壬辰倭亂 以後의 朝·日講和交涉과 對馬島(1)-交隣 秩序의 再編을 中心으로-> 《史學研究》 39(한국사학회, 서울)
- 152, 朴夏夏, 1987, <임란 직후의 鄉約에 대한 연구-고평동동계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5(중앙대 사학연구회, 서울)
- 153, 백숙일, 1987, <‘징비록’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력사과학》
- 154, 孫寶基, 1987, <壬辰倭亂과 일본의 活字 印刷術> 《애산학보》 5(애산학회, 서울)
- 155, 孫承喆, 1987, 《近世韓日關係史》(江原大出版部, 춘천)
- 156, 呂恩暉, 1987, <朝鮮後期 山城의 僧軍總攝> 《大丘史學》 32(大丘史學會, 대구)
- 157, 柳承宙, 1987, <晉州城의 義妓論介考>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探求堂, 서울)
- 158, 李章熙, 1987, <倭亂과 胡亂> 《한국사연구입문》(지식산업사, 서울)
- 159, 李載浩, 1987, <壬辰倭亂과 柳西厓의 自主國防策> 《歷史教育論集》 11(慶北大 歷史教育學會)
- 160, 李貞一, 1987, <全羅右水使 李億祺考>, 《蔚山史學》 1(蔚山大學校 史學科)
- 161, 張學根, 1987, 《朝鮮時代海洋防衛史研究》(海軍士官學校)
- 162, 鄭震英, 1987, <壬亂前後 尙州地方 士族의 動向> 《민족문화논총》 8(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163, 高錫珪, 1988, <鄭仁弘의 義兵活動과 山林基盤> 《韓國學報》 51(一志社, 서울)
- 164, 具德會, 1988,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體制的 재편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 20(서울대 국사학과, 서울)
- 165, 金甲周, 1988, <南北漢山城 義僧番錢의 綜合的 考察> 《불교학보》 25(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166, 李錫麟, 1988, <趙憲을 中心으로 한 壬亂初期의 義兵分析>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우인김용덕박사정년기념사학논증간행위원회, 서울)

- 167, 孫承詰, 1988, <朝鮮朝 事大交隣政策의 成立과 그 性格-朝鮮朝對外政策史研究試論->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 168, 孫鍾聲, 1988, <壬辰倭亂時 分朝에 관한 소고> 《계촌민병학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계촌민병학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서울)
- 169, 宋俊浩, 1988, <진주에서 재확인되는 조선조사회의 지속성 -임란을 겪은 진주사회의 서언으로서> 《종교 인간 사회 -휴머니티의 회복을 위하여》(서의필선생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170, 楊萬鼎, 1988, <海翁 金弘遠의 生涯와 倡義 活動> 《진라문화연구》 3(전북향토문화연구회)
- 171, 鄭弘俊, 1988, <壬辰倭亂 직후 統治體制의 整備過程-性理學의 秩序의 強化를 중심으로> 《규장각》 11 규장각
- 172, 趙楨基, 1988, <西厓 柳成龍의 軍政思想>(I), 《부산사학》 14 15 부산대
- 173, 許善道, 1988, <壬亂劈頭 東萊(부산)에서의 여러 순절과 그 숭양사업에 대하여(상)> 《한국학논총》 1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174, 南都泳, 1989, <壬辰倭亂시 광해군의 활동 연구> 《國史館論叢》 9 국사편찬위원회
- 175, 李章熙 외, 1989,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군사》 19 국방군사연구소
- 176, 閔德基, 1989, <壬辰倭亂 以後의 朝 日講和交渉과 對馬島(2)-交隣 秩序의 再編을 中心으로-> 《史學研究》 40 한국사학회
- 177, 尹用出, 1989, <壬辰倭亂 時期 軍役制의 動搖와 改編> 《釜大史學》 13 부산대사학회
- 178, 李敏昊, 1989, <光海君朝의 對日關係考察>, 《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논총 조선시대사연구》
- 179, 田炳詰, 1989, <壬辰倭亂期 納粟政策> 《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논총 조선시대사연구》 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 180, 趙潑來, 1989, <임란기 호남의병과 의병지도층의 성격> 《북악사론》 1 국민대 국사학과
- 181, 趙楨基, 1989, <西厓 柳成龍의 軍政思想(II)-戰時 國用確保를 中心으로> 《논문집》 11-7 창원대학
- 182, 趙楨基, 1989, <西厓 柳成龍의 城墩論> 《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논총 조선시대사연구》
- 183, 河泰奎, 1989, <壬亂期에 있어서 全北人의 倡義活動 - 湖南節義錄의 分析을 中心으로->, 《全羅文化論叢》 3,전북대 진라문화연구소 "
- 184, 金圻彬, 1990, <睡隱 姜沆 研究 -愛國思想과 文學世界> 《민족문화》 13 민족문화추진회
- 185, 金昊鍾, 1990, <西厓 柳成龍의 國防思想>, 《退溪學》 2 퇴계학연구소
- 186, 方相鉉, 1990, <朝鮮後期 水軍統制使 研究-水軍統制營 設置背景을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17

- 187, 孫鍾聲, 1990, <壬辰倭亂時 對明外交 -請兵外交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14 국사편찬위원회
- 188, 이명길, 1990, <義妓 論介의 史蹟 考察>, 《진주문화》 4(진주문화원)
- 189, 崔韶子, 1990, <明末 중국적 세계질서의 변화-임진·정유왜화를 중심으로> 《명말청초 사회의 조명》
- 190, 河泰奎, 1990, <壬亂에 있어 熊峙戰의 位相에 대하여 -湖南防禦와 관련하여-> 《全羅文化論叢》 4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 191, 愼浩史, 1991, <壬辰亂과 이순신의 전략전술> 《국제 해양력 심포지움 발표문집》 해양연구소
- 192, 姜永五, 1991, <이순신 제독의 전략적 딜레마와 현대적 관련성> 《국제해양력심포지움 발표논문집》 해군군사연구소
- 193, 姜泳勳, 1991, <李忠武公의 軍法運用>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허선도교수 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 194, 金錫禧, 1991, <壬辰倭亂중의 구휼에 관한 일고> 《일본연구》 9 부산대 일본문제연구소
- 195, 金一相, 1991, <壬辰倭亂과 李舜臣의 戰略> 《조성도교수화갑기념 충무공이순신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 196, 金一相, 1991, <壬辰倭亂과 이순신의 전략> 《허선도교수 화갑기념 충무공이순신연구논총》
- 197, 金秋鵬, 1991, <壬辰倭亂時 中國의 航海科學과 軍船> 《국제해양력심포지움발표문집》 해군해양연구소
- 198, 李根寬, 1991, <이충무공시대의 軍刑法에 대한 시론적 고찰> 《허선도교수 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 199, 朴哲, 1991, <스페인 선교사가 기록한 壬辰倭亂> 《허선도교수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 200, 朴河成, 1991, <군정 신교육을 위한 가치교육적 접근> 《허선도교수 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논총》
- 201, 方相鉉, 1991, <朝鮮 龜船의 接木性 研究 (劍船과 板屋船接木)>, 《경희사학》 16 17
- 202, 梁銀容, 1991, <全羅左水營의 義僧水軍에 관한 研究> 《전남문화재》 3
- 203, 유병선, 1991, <壬亂初의 朝明關係> 《허선도교수 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 204, 李根寬, 1991, <李忠武公時代의 軍刑法에 대한 試論的 考察> 《조성도교수화갑기념충무공이순신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 205, 李敏雄, 1991, <李忠武公 全書의 內容과 歷史的 價値> 《조성도교수화갑기념충무공이순신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 206, 李貞一, 1991, <壬亂과 元均> 《조성도교수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 207, 張學根, 1991, <강화론과 결전론이 수운통제사 교체에 미친 영향> 《허선도교수 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 208, 장현도 외, 1991, <이충무공 해전유물의 탐사방안에 대한 소고> 《허선도교수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 209, 鄭夏明, 1991, <조선시대의 碗口와 震天雷> 《육사논문집》 40 육군사관학교
- 210, 趙楨基, 1991, <西厓 柳成龍과 忠武公 李舜臣: 柳成龍을 중심으로-> 《허선도교수 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 211, 中村質, 1991, <壬辰倭亂에 관련된 제문제> 《국제 해양력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해양연구소
- 212, 崔煥煥, 1991, <명량해전과 강강수월래> 《허선도교수 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연구논총》
- 213, 崔永禧, 1991, <壬辰倭亂의 재조명> 《國史館論叢》 30 국사편찬위원회
- 214, 崔孝軾, 1991, <壬辰倭亂중 경주전투> 《경주사학》 10 慶州史學會
- 215, 許善道, 1991, <順天(昇州) 倭橋城(新城里城)考 -名稱과 解說의 잘못을 바로잡음> 《震檀學報》 71 72 진단학회
- 216, 許善道, 1991, <壬辰倭亂의 재조명> 《국제해양력심포지움발표논문집》 해군사관학교
- 217, 金相助, 1992, <"溪西野譚系"에 나타난 倭亂 胡亂에 대한 시각> 《백록어문》 9 제주대 국어교육과
- 218, 金錫禧, 1992, <壬辰倭亂과 청도지역의 창의활동> 《釜山史學》 23 부산대 사학과
- 219, 金恒洙, 1992, <宣祖 初年の 新舊葛藤과 政局動向> 《國史館論叢》 34 국사편찬위원회
- 220, 金泰俊, 1992, <壬辰倭亂과 韓日間의 文化的 대응> 《아시아문화》 8 한림대
- 221, 李南姬, 1992, <慶尙右道の 義兵활동과 實錄記事> 《慶南文化研究》 14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 222, 文叔子, 1992, <誠菴古書博物館 所藏 壬亂以前の 分載기> 《書誌學報》 8
- 223, 朴性植, 1992, <晋州城 戰鬪> 《慶南文化研究》 14(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 224, 安啓賢, 1992, <韓國僧軍譜>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 경서원
- 225, 李樹健, 1992, <月谷 禹拜善의 壬辰倭亂 義兵活動 -그의 《倡義遺錄》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13(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226, 李章熙, 1992, <壬亂前後 한국의 社會動態> 《아시아문화》 8
- 227, 李章熙, 1992, <壬辰倭亂 義兵性格의 分析> 《韓國史論》 22
- 228, 李亨求, 1992, <서울 南山北麓出土 萬曆癸未銘 勝字銃 筒考-附:京畿道 廣州出土 新製銃筒->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일조각)

- 229, 張學根, 1992, <壬亂期間 史論에 나타난 宣祖의 執權計略> 《中齋張忠植博士華甲記念論叢》(논총간행위원회, 서울)
- 230, 鄭棟柱, 1992, <晉州城 戰鬪와 論介> 《南冥學研究》 7(壬辰倭亂과 晉州城 戰鬪)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 231, 趙浚來, 1992, <明軍의 出兵과 壬辰戰局의 推移> 《韓國史論》 22 國史編纂委員會
- 232, 趙浚來, 1992, <壬辰倭亂과 海上義兵> 《택와허선도선생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 233, 中村質, 1992, <秀吉 政權과 壬辰倭亂의 特質> 《아시아문화》 8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회
- 234, 崔韶子, 1992, <壬辰倭禍와 明朝> 《아시아문화》 8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회
- 235, 崔永禧, 1992, <壬辰倭亂 연구를 위한 제언> 《아시아문화》 8
- 236, 崔永禧, 1992, <壬辰倭亂 첫 전투에 대하여> 《한국사학논총》 상
- 237, 해군사관학교박물관 편, 1992, 《忠武公 李舜臣 遺蹟圖譜》,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 238, 許善道 외, 1992, 《壬辰倭亂의 재조명》《韓國史論》 22, 국사편찬위원회
- 239, 姜秉植, 1993, <壬亂期 李舜臣과 元均에 대한 小考>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 240, 姜性文, 1993, <首都 서울 防衛에 대한 연구> 《육사논문집》 45 육군사관학교
- 241, 姜性文, 1993, <朝鮮時代의 環刀의 機能과 製造에 관한 研究> 《學藝誌》 3陸軍博物館
- 242, 姜永五, 1993, <이순신의 出戰拒否는 抗命이다>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 243, 姜永五, 1993, <임란교훈을 통해 본 朝鮮海軍의 位相>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 244, 姜永五, 1993, <壬亂期 朝·日의 海軍전략>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 245, 金裕成, 1993, <名護屋城圖의 安宅船에 관한 考察> 《壬亂水軍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 246, 金一相, 1993, <鳴梁海戰의 戰術的 考察> 《壬亂水軍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 247, 金在瑾, 1993, <壬辰倭亂中 朝·日·明 軍船의 特性> 《壬亂水軍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 248, 金鍾基, 1993, <釜山浦海戰> 《壬亂水軍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 249, 金鍾洙, 1993, <壬辰倭亂 이후 朝鮮의 對明·淸 관계> 《壬亂水軍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 250, 金泰雄, 1993, <壬辰倭亂 이후 朝鮮 國家의 再建> 《壬亂水軍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 251, 金時晃, 1993, <鶴峯先生の 招諭文에 대하여> 《鶴峯의 학문과 구국활동》 학봉김선생 기념사업회
- 252, 羅鍾宇, 1993, <충무공이순신 제독의 전략전술>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53, 閔德植, 1993, <丁酉再亂時 川上久國이 그린 南原城圖에 대하여> 《송갑효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 254, 朴珠, 1993, <壬辰倭亂과 旌表> 《한국전통문화연구》 8
- 255, 潘允洪, 1993, <壬亂이후 備邊司의 邊事措置와 軍事政策의 議政> 《歷史學報》 139 역사학회
- 256, 孫寶基, 1993, <壬辰倭亂때 일본으로 건너간 金屬活字 印刷術> 《고인쇄문화》 1 청주 고인쇄박물관
- 257, 孫承喆, 1993, <朝鮮時代 交隣體制의 分析和 그 문제점>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학회
- 258, 劉善浩, 1993, <李舜臣과 魚泳潭>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59, 李敏旻, 1993, <壬辰倭亂후 朝鮮의 對日外交 -國交再開過程->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60, 李佑成, 1993, <豊臣秀吉 政權과 鶴峯先生の '海搓錄'> 《鶴峯의 학문과 구국활동》 학봉 김선생기념사업회
- 261, 李載浩, 1993, <慶尙右道에서의 鶴峯의 討賊救國活動-特히 官義兵의 領導와 飢民 求活의 事功에 對하여-> 《鶴峯의 학문과 구국활동》 학봉 김선생기념사업회
- 262, 張學根, 1993, <선조의 집권계략에 나타난 이순신 원군의 평가>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63, 張學根, 1993, <倭軍嚮道論에 대한 明日의 압력과 朝鮮의 對應>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64, 張學根, 1993, <임란기 조선조정의 수군에 대한 기대와 운용책>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65, 張學根, 1993, <임진초기 명군 來援과 軍糧論議>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66, 張學根, 1993, <충무공 이순신의 하옥죄명·전물상환·자살론·순국론에 관한 검토>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67, 張學根, 1993, <충무공 이순신의 하옥죄명·전물현황·자살론에 관한 검토> 《학예지》 3 육군박물관
- 268, 鄭鎮述, 1993, <全羅右水使 李億祺와 統制使 李舜臣> 《壬亂水軍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69, 鄭鎮述, 1993, <한산도해전 연구>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 270, 趙浚來, 1993, <壬辰倭亂과 전라좌수영>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 271, 崔孝軾, 1993, <정유재란중 울산혈전> 《소헌남도영박사고회기념 역사학논총》
- 272, 金子相, 1994, <尙義軍·昌義軍 研究 ; 尙州 壬亂文獻을 中心으로> 《尙州文化研究》 4
尙州産業大 尙州文化研究所
- 273, 朴哲晸, 1994, 《壬辰倭亂과 화약병기》, 건국대 석사논문
- 274, 孫弘烈, 1994, <壬辰倭亂과 조선의 의학> 《청대사림》 6 청주대 사학회
- 275, 宋正炫, 1994, <壬辰倭亂론 -관군과 의병의 역할 문제> 《전남사학》 8
- 276, 梁銀容, 1994, <壬辰倭亂과 호남의 불교의승군> 《한국종교》 19
- 277, 鄭杜熙, 1994, <李舜臣研究-임진년 이후 그의 전략과 정유재란에 관한 재검토> 《李基
白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下) 일조각
- 278, 趙浚來, 1994, <壬亂初戰 방어실패와 근왕의병의 붕괴> 《창해박병국교수정년기념 사학
논총》
- 279, 趙浚來, 1994, <정유재란과 호남의병> 《전남사학》 8 전남대
- 280, 崔孝軾, 1994, <임란 중 경주사원의 항전활동> 《지촌김갑주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 281, 崔孝軾, 1994, <壬辰倭亂중 영천성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 47
- 282, 姜性文, 1995, <朝鮮時代 片箭에 관한 研究> 《學藝誌》 4 陸軍博物館
- 283, 金康植, 1995, <壬辰倭亂 의병의 성격변화> 《부대사학》 19 부산대 사학과
- 284, 金康植, 1995, <壬辰倭亂 의병활동과 성격> 《부대사학》 17 부산대 사학과
- 285, 金文子, 1995, <秀吉의 朝鮮 再侵略 直前の 日本側 動向에 대해서; 柳川調信의 活動을 중
심으로> 《祥明史學》 3·4합(祥明史學會)
- 286, 金子相, 1995, <尙州 北川の 壬亂戰蹟 考察-關係文獻을 中心으로> 《尙州文化研究》 5
尙州産業大 尙州文化研究所
- 287, 李東根, 1995, <壬辰倭亂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288, 李相弼, 1995, <壬亂 倡義人脈 小考; 《茅谿先生日記》를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1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 289, 朴哲晸, 1995, <壬辰倭亂기 조선군의 화약병기에 대한 일고찰> 《군사》 30 국방군사연
구소
- 290, 朴哲晸, 1995, <壬辰倭亂기 화약병기의 도입과 전술의 변화> 《학예지》 4 육군박물관
- 291, 梁銀容, 1995, <정유재란의 石柱關戰鬪와 華嚴寺 의승군> 《가산학보》 4
- 292, 李敏昊, 1995, <壬辰倭亂 첫 번째 回答兼刷還使의 파견> 《동서사학》 1
- 293, 李章熙, 1995, <임란중 山城修築과 堅壁淸野에 대하여> 《부춘신연철교수정년퇴임기념
사학논총》 간행위원회

- 294, 李章熙 외, 1995, <倭軍擊退의 戰略,戰術> 《韓國史》 29 國史編纂委員會
- 295, 張學根, 1995, <임란기 선조의 전략사고와 수군의 입장> 《동서사학》 1
- 296, 張學根, 1995, <임란기 선조의 전략사고와 수군의 입장> 《사학지》 28
- 297, 鄭鎭述, 1995, <壬亂期 朝鮮水軍의 武器體系> 《學藝誌》 4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 298, 河泰奎, 1995, <高敬命 湖南義兵의 性格과 錦山戰鬪의 意義> 《神學과 社會》 9, 한일신학대 기독교종합연구원
- 299, 洪性德, 1995,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한일관계사연구》 3 한일관계사학회
- 300, 金康植, 1996, <忘憂堂 郭再祐의 義兵運動과 政治의 役割> 《南冥學研究》 5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 301, 金康植, 1996, <壬辰倭亂中の 軍糧 調達策과 影響> 《文化傳統論集》 4 慶星大 郷土文化研究所
- 302, 金 泰, 1996, <申道道の 生平과 義兵活動> 《退溪學》 8 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 303, 李志映, 1996, <壬辰倭亂과 대외관계> 《동국역사교육》 4 동국역사교육회
- 304, 李鉉淙, 1996, <申砮에 대한 修正의 批判 -彈琴臺 戰鬪를 中心으로-> 《東義史學》 9·10합집 東義大學校 史學會
- 305, 朴哲暁, 1996, <동아시아 삼국의 무기 제조와 교류 -15.16세기를 중심으로> 《학예지》 5 육군박물관
- 306, 朴哲暁, 1996, <壬辰倭亂기 朝日兩國의 武器體系에 관한 일고찰> 《한일관계사연구》 6 한일관계사학회
- 307, 朴尙煥, 1996, <壬辰倭亂과 鄭湛 將軍> 《軍史》 32 國防軍史研究所
- 308, 朴翼煥, 1996, <壬亂時 一次晋州城大捷에서의 鶴峰과 金時敏의 功業> 《아시아문화》 12 翰林大 아시아文化研究所
- 309, 沈勝求, 1996, <壬辰倭亂중 武科及第者の 身分과 特性> 《韓國史研究》 91
- 310, 魚敬善, 1996, <壬辰倭亂과 忠州戰鬪> 《향토사와 향토문화》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 311, 柳在春, 1996, <壬辰倭亂과 忠壯公 韓百祿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創刊號》 江原郷土文化研究會
- 312, 李相薰, 1996, <壬辰倭亂기 강원지역의 향전과 역할> 《아시아문화》 12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313, 李樹健, 1996, <忘憂堂 郭再祐 義兵活動의 社會 經濟的基盤> 《南冥學研究》 5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 314, 李章熙, 1996, <壬辰倭亂중 屯田經營에 대하여> 《동양학》 26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

연구소

- 315, 趙浚來, 1996, <丁酉再亂과 順天 倭橋城戰鬪> 《아시아문화》 12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 316, 崔 官, 1996, <日本近世文學のもう一つの系譜>, 《일본학보》제36집(한국일본학회)
- 317, 崔斗煥, 1996, <충무공 이순신의 여가선용 -중정도 놀이 연구-> 《해양전투》 95 해양대학
- 318, 崔奎聖, 1996, <忠武公 李舜臣 장군> 《중산정덕기박사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중산정덕기박사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 319, 崔孝軾, 1996, <壬亂時 慶州 중심의 朝.日 講和交涉展開> 《慶州史學》 15 慶州史學會
- 320, 金鍾基, 1997, <制海權의 觀點에서 본 李舜臣의 海洋戰略> 《海洋戰略》 95 海軍大學
- 321, 金時晃, 1997, <鶴峰 金誠一先生의 錦城錄에 對하여> 《韓國의 哲學》 25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 322, 羅鐘宇, 1997, <壬辰/丁酉倭亂과 全羅道精神> 《東西史學》 3 韓國東西史學會
- 323, 盧永九, 1997,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 國防軍史研究所
- 324, 朴尙煥, 1997, <壬辰倭亂과 鄭湛將軍> 《竹堂李炫熙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죽당이현희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 325, 朴翼煥, 1997, <임란시 1차 晉州城大捷의 실상과 바른 民族史의 教育方案> 《晉州文化》 14
- 326, 沈勝求, 1997, <壬辰倭亂중 武科의 運營實態와 機能> 《朝鮮時代史學報》 1 朝鮮時代史學會
- 327, 李敏旻, 1997, <壬辰倭亂과 對日國交再開의 序幕> 《黃山李興鍾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 328, 鄭杜熙, 1997, <이순신> 《朝鮮時代 人物의 再發見》 일조각
- 329, 趙浚來, 1997, <난중일기로 본 壬辰倭亂 중의 사회상> 《한국사학사연구》 간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 330, 崔 官, 1997, <일본근세문학에 있어서 壬辰倭亂과 毛谷村六助>, 《일본어문학》제3집(한국일본어문학회)
- 331, 崔錫起, 1997, <忘憂堂 郭再祐의 節義精神> 《南冥學研究》 6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 332, 崔海甲, 1997, <忘憂堂 郭再祐의 生涯와 思想> 《晉州文化》 14 晉州敎大 附設 晉州文化圈研究所
- 333, 崔孝軾, 1997, <壬亂初 慶州 義兵活動 研究> 《慶州史學》 16 慶州史學會
- 334, 韓明基, 1997, <壬辰倭亂 시기 明軍 참전의 社會.文化的 영향> 《軍史》 35 國防軍史研究所
- 335, 郭鎬濟, 1998, <壬辰倭亂期 淸州城戰鬪의 義兵將 研究> 《忠南史學》 10 忠南史學會

- 336, 金甲童·전병수, 1998,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주제별로 본 한국역사》 서경문화사
- 337, 金康植, 1998, <壬辰倭亂 시기 慶尙右道の 義兵運動 기반> 《釜大史學》 22 부산대 사학과
- 338, 金盛祐, 1998, <壬辰倭亂 이후 복구 사업의 전개와 양반층의 동향>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 339, 金駿錫, 1998, <兩亂期の 國家再造 문제> 《韓國史研究》 115 한국사연구회
- 340, 羅鍾宇, 1998, <조선수군의 무기체계와 전술구사> 《壬辰倭亂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전쟁기념관
- 341, 盧永九, 1998, <朝鮮 增刊本 '紀效新書'의 체제와 내용 -顯宗 5년 재간행 '紀效新書'의 兵學史的 의미를 중심으로-> 《軍史》 36 國防軍史研究所
- 342, 朴晳暁, 1998, <壬辰倭亂 승전인가 패전인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자작나무
- 343, 方相鉉, 1998, <李忠武公의 丁酉再亂 小考> 《史學研究》 55.56合集
- 344, 北島万次, 1998, <壬辰倭亂과 晋州城 戰鬪> 《南冥學研究》 7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 345, 北島万次, 1998, <壬辰倭亂과 이순신> 《南冥學研究》 8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 346, 北島万次, 1998, <조선수군의 연승과 일본군의 대응전술> 《壬辰倭亂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전쟁기념관
- 347, 徐台源, 1998, <壬辰倭亂 및 효종의 북벌론이 내정에 끼친 영향> 《國史館論叢》 80 국사편찬위원회
- 348, 安國承, 1998, <임란 의병장 鄭文孚 연구> 《경기향토사학》 3 全國文化院聯合會 京畿道支會
- 349, 李採衍, 1998, <韓.日實記文學에 나타난 壬辰倭亂 체험의 형상화전략> 《韓國文學論叢》 22, 韓國文學會
- 350, 鄭東鎰, 1998, <고양지역에서의 여타전투와 의병활동> 《경기향토사학》 3
- 351, 鄭成一, 1998, <조선 陶工의 후예, 또칠이와 이삼평> 《한국과 일본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한일관계사학회
- 352, 趙溪來, 1998, <壬辰倭亂과 綾州義兵> 《綾州牧의 歷史와 文化》 목포대학교박물관.화순군
- 353, 村井章介, 1998, <壬辰倭亂의 歷史의 前提 -日朝關係史를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7,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 354, 崔琯, 1998, <일본문학에 나타난 壬辰倭亂의 영향> 《南冥學研究》 7,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 355, 崔官, 1998, <일본근세문학속의 이순신장군>, 《별권 비교문학》 98, 한국비교문학회

90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 356, 崔斗煥, 1998, <충무공 이순신의 진법 운용과 신호체계> 《壬辰倭亂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전쟁기념관
- 357, 崔永禧, 1998, <壬辰倭亂에 대한 몇 가지 意見> 《南冥學研究》 7,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 358, 崔永禧, 1998,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 《壬辰倭亂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전쟁기념관
- 359, 河宇鳳, 1998, <일본에 주자학을 전한 조선인 포로 강항> 《한국과 일본》 상 자작나무
- 360, 韓明基, 1998, <정유재란기 명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군> 《壬辰倭亂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전쟁기념관
- 361, 姜性文, 1999, <幸州大捷에서의 권율의 전략과 전술> 《壬辰倭亂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 362, 金文子, 1999, <壬辰倭亂에 대한 일본의 시각 변천>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 363, 金晷鍾, 1999, <壬亂때 唐橋倭賊과 嶺南 北部地方 鄉兵의 抗爭> 《歷史教育論集》 23:24 合 歷史教育學會
- 364, 朴哲晁, 1999, <임란 초기전투에서의 官軍의 활동과 권율> 《壬辰倭亂과 권율》 전쟁기념관
- 365, 박찬기, 1999, <壬辰倭亂 관련 일본 군기문학 연구>, 고려대학교박사논문
- 366, 宋亮燮, 1999, <壬辰倭亂期 國家의 屯田設置와 經營> 《韓國史學報》 7 고려사학회
- 367, 沈勝求, 1999, <壬辰倭亂期 軍事指揮權의 推移와 성격> 《壬辰倭亂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 368, 吳宗祿, 1999, <壬辰倭亂-丙子胡亂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9 國防軍史研究所
- 369, 李乃沃, 1999, <전쟁을 통한 문화교류> 《새롭게 다시 보는 壬辰倭亂》 진주박물관
- 370, 李相薰, 1999, <都元帥 權慄의 전략 구상과 활동> 《壬辰倭亂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 371, 李章熙, 1999, <都元帥 權慄論> 《壬辰倭亂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 372, 村正章介, 1999, <島津史料로 본 사천전투> 《南冥學研究》 8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 373, 崔官, 1999, <모쿠소(木曾)의 문학화>, 《일본문학연구》창간호(한국일본문학회)
- 374, 崔官, 1999, <天竺德兵衛物에 대한 고찰>, 《일어일문학》 11집(대한일어일문학회)
- 375, 河泰奎, 1999, <丁酉再亂期 全羅道 지방의 義兵活動에 대하여 -全羅道 北部 地方의 義兵活動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10(한일관계사학회)
- 376, 韓明基, 1999, <壬辰倭亂시기 '再造之恩'의 형성과 그의미> 《동양학》 2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377, 金祥起, 2000, <壬辰倭亂期 權慄의 梨峙大捷> 《忠南史學》 12 忠南史學會

- 378, 李錫麟, 2000, <壬辰倭亂期 淸州城戰鬪와 義兵活動> 《忠北史學》 11·12合輯 忠北大學校 史學會
- 379, 趙浚來, 2000, <壬辰倭亂史 연구의 推移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現況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 380, 崔官, 2000, <‘삼한의 왕은 일본의 개다’에 관하여>, 《일본어문학》 8집(한국일본어문학회)
- 381, 韓明基, 2000, <壬辰倭亂 시기 明의 內政干涉과 直轄統治論> 《東아시아 歷史의 還流》 지식산업사
- 382, 朴哲暎, 2001, <壬辰倭亂期 일본군의 占領政策과 영향> 《군사》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383, 金時德, 2002, <《다이코키》와《에혼다이코키》의 比較연구-壬辰倭亂 관련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석사논문
- 384, 朴哲暎, 2002, <15~16세기 조선의 화기 발달> 《학예지》 9 육군박물관
- 385, 朴哲暎, 2002, <壬辰倭亂期 望菴 邊以中의 軍事活動> 《壬辰倭亂기 망암 변이중의 활동과 사상》 봉암서원
- 386, 朴哲暎, 2002, <壬辰倭亂期 日本軍의 漢城占領과 蘆原坪戰鬪> 《노원의 역사를 재조명한다-壬辰倭亂을 중심으로》 광운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387, 朴哲暎, 2002, <정유재란기 朝明 水軍의 聯合作戰과 露梁海戰> 《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학술발표》 남해군
- 388, 李敏雄, 2002, <丁酉再亂期 漆川梁海戰의 배경과 원군 함대의 패전 경위>《韓國文化 29》(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389, 李敏雄, 2002, <鳴梁海戰의 경과와 주요 쟁점 考察> 《軍史》 47(國防部 軍事編纂研究所)
- 390, 金時德, 2003, <《다이코키(太閤記)》의 壬辰倭亂 기사에 대한 고찰> 《일본학보》 56(한국일본학회)
- 391, 李敏雄, 2003, <朝·明 聯合艦隊의 形成과 露梁海戰 경과> 《歷史學報》 178(歷史學會)
- 392, 崔官, 2003,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壬辰錄》> 《비교문학》 30(한국비교문학회)
- 393, 金時德, 2004, <에도 후기 요미혼의 壬辰倭亂 서술 양상에 대하여 -상주·충주 전투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집(한일군사문화학회)